



대전시와 대학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박 노 동

—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 대전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지역교육 발전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의 기본적인 지원 및 협력방안을 제시

■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개념 설정

-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기능

구분	대지역민 편익 제공	대기업 편익·협력	지방정부 협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강좌 - 사회인 학교수용 - 시설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학생 - 강사파견 - 기업내 교육수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연수 - 인력공급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공동연구 - 지역문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 - 수탁연구 - 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의 조사연구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보의 데이터뱅크 - 학습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정보 데이터뱅크 - 기술 및 경영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보와 행정 - 정보의 데이터 뱅크
사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업기획 지원 - 지역네트워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전략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업무 지원 - 각종 컨벤션 지원

-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내용과 방향 설정

- 의식개혁의 주체로 활용
- 상호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인재 개발시스템 구축

■ 지역과 대학협력 사례검토

○ 하버드 대학과 보스톤시의 상호협력 사례 검토

- 대학 제공 평생교육, 열린교육,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 시민 참여 활성화
- 소비주체로서 하버드대학의 대지역사회 경제 파급효과 상당
-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레크레이션,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전개
- 대학생 장학금, 주택보조 재정지원 모범

○ 일본 코오베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사례

- 문학부 지역연휴센터를 중심으로, 자치체·지역주민과 연휴한 새로운 자치체사
편찬과 지역문화박물관 형성 사업, 자치체·NGO와의 협력에 의한 역사자료의
보존사업, 한신·아와지 대지진 자료의 보존 활용 사업, 역사문화유산 활용기
구의 구축 지원과 인재육성사업을 추진
- 대학의 자발적이며, 학부 자율적으로 지역과의 협력사업이 체계화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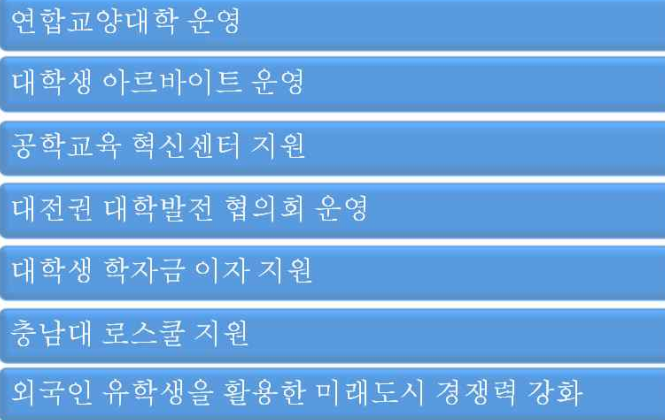
■ 지역 대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중앙 정부는 대학지원의 3대 목표로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기초원 천연구 진흥”,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유치”를 제시

-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연구개발과 인재양성간 연계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 추진
- 기초원천연구 진흥을 위해 기초원천 연구비 비중 25%('08)→ 50%('12) 확
대, 우주·극지·해양 등 거대과학 투자 내실화, 원자력 등 미래에너지기술
개발 등의 과제 추진
-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유치를 위해서는 과학영재학교 확충, 창조적 과학
기술인력 양성, 글로벌 우수 과학자 유치 및 공동연구 등의 과제 추진
-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
으로 부족한 형편, 대학생의 생활지원이 부족하며, 학과 이외의 문화예술활동 등
에 대한 지원은 부재

- 2012년 대전광역시의 대학협력사업으로 대학협력계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한 사업은 총 7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됨

대전시의 대학협력 지원사업(2012년 대학협력담당 업무)



- 대전광역시는 대학협력 및 지원사업을 타시도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남게 되었으며, 타시도에 비하여 대학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됨
-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 노출
 - 대학과의 연계 협력에 애로사항이 존재
 - 주로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인력양성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대학과의 협력사업이 일부대학 및 기관 지원에 편중됨
 - 상대적으로 문화·예술·복지 등 대학생 생활지원분야사업 미흡

■ 대학생 정책지원 요구 내용

- 대학생의 대전광역시 정주의식 및 만족도, 대전광역시 대학정책지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중점 과제를 확인하고 설정하기

위한 조사 실시 및 분석

○ 대학생의 생활여건 만족도

- 7개 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는 환경이 3.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안전(3.00) > 대중교통 이용 및 도로 관리(2.82) > 교육 여건(2.67) > 고급서비스(의료·법률·금융)수준(2.47) > 문화생활과 여가(2.36) > 경제활동(2.29)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문화생활 여건 및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시급함을 간접적으로 시사

○ 취업과 일자리 시책 요구

-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전광역시가 우선해야 할 정책은 지역출신 청년 고용기업 우대, 지역기업 취업정보 제공, 청년고용할당제 및 장려금 확대가 모두 비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 대학생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보다는 취업이 지역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지역사회 기능과 지역대학의 역할 인식

-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대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어서 하는지를 물어 본 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적 풍토 조성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 배출이라고 응답
-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자원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창의적 발상들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가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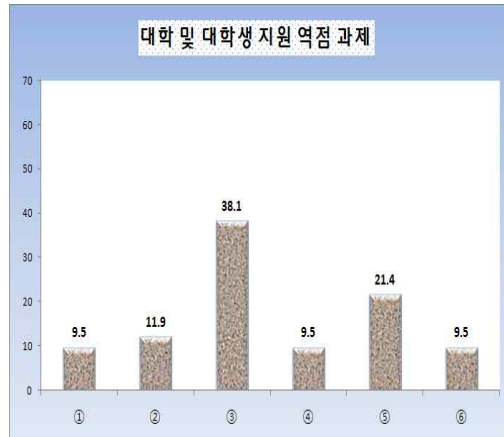
○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 지자체로서 대전시가 지역대학 육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결과, 지역산업단체를 포함하여 지역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역대학, 특히 지역의 대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전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 영역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 본 결과, 대학생 참여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과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항목	빈도	%
① 시와 대학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	10	9.5
② 캠퍼스의 지역화/지역의 캠퍼스화 추진	13	11.9
③ 대학생 참여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42	38.1
④ 대학 커뮤니티 커넥트 운영	10	9.5
⑤ 지역대학생 취업기회 확대	25	21.4
⑥ 대학생 시정참여 및 행정지원	10	9.5
합계	110	100.0



2. 정책제안

■ 대학협력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목표 : 세계적 수준의 대학생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시·대학의 유기적 협력
 - 대학생활동지원사업의 발굴·추진
 - 대학생의 시정참여기회 확대
- 중점과제
 - 대전시와 대학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캠퍼스의 지역화 / 지역의 캠퍼스화 추진
 - 대학참여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 창조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커뮤니티 커넥트 운영
- 지역대학생 취업기회 확대
- 대학생 시정 참여 및 행정 지원

○ 추진전략

- 지역대학과 지역의 경제, 문화, 복지가 상호 수평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방향 및 영역 설정
- 국내 각 대도시와 대학생의 삶의 질에서 비교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 대규모 단기 가시적 사업보다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기획하여 추진
- 대학생의 체감도 증진을 위한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지역대학간, 대학과 지역사회간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

■ 대학협력 세부 추진과제 제안

시 책 · 사 업 명	구분
30개 시책·사업	
·대전광역시 대학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계속
·대학총학생회장단협의회(가칭) 구성 운영	신규
·「대학생생포럼」 운영	신규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급	계속
·대학행사 연합홍보	신규
·공공공간 대학생 교류회랑 지정 및 조성	신규
·대학부설 문화·체육공간 시민활용	신규
·대학생 주도의 '대전 Fringe Festival' 개최 지원	신규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대학참여도 제고	신규
·대학생 통학 편의성 제고	신규

시 책 · 사 업 명	구분
·대학생 참여 복지사업 추진	신규
·대학생 voluntainment movement 실시	신규
·다문화가족아동 mentoring 실시	신규
·책읽는 문화조성 대학생 참여 증진	신규
·대학특성화 프로젝트 상호협력확대	계속
·산·학·연 협력사업 대학지원 확대	계속
·대전(산,하천,역사)사랑 대학동아리활동 지원	신규
·대전 청년 Art Stage 조성 및 제공	신규
·누리관을 활용한 대학생 국제교류 확대	계속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공급	계속
·지역대학생 채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계속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및 창업박람회 개최	계속
·대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신규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	계속
·대학새내기 대전탐방	신규
·e-시정도우미 운영	신규
·수요자 기반 행정인턴제 실시	신규
·청년과 소통하는 시정	계속
·대학건의 숙원사업 지속관리	계속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
제2장 지역과 대학협력방안에 관한 논의 검토	11
제1절 기존논의 검토	11
제2절 연구방향 정립을 위한 개념 검토	19
제3절 지역과 대학협력 국외 사례검토	30
제3장 지역대학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39
제1절 중앙정부의 대학지원 사업 검토	39
제2절 대전광역시 대학협력 사업의 추진현황	57
제4장 대학생 정책지원 요구 분석	65
제1절 대학생 정책지원요구 설문조사	65
제2절 대전지역 대학생 취업간담회 개최시 제출 의견	83
제5장 대전시와 대학의 협력 방안	95
제1절 대학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여건분석과 과제	95
제2절 대학협력 세부 추진과제	102
참 고 문 헌	137

- 표 목 차 -

<표 1>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	23
<표 2> 서울 소재 대학과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비교(‘11년 4년제) ..	41
<표 3> 5.31 교육개혁 이후 역대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 정책	44
<표 4>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중점 추진과제	47
<표 5> 7대 도시 학교수 및 학생수 비교	98
<표 6> 대학협력 세부 추진과제 및 사업	102

- 그림 목 차 -

<그림 1> 지역개발과 교육의 순환적 의존 관계	22
<그림 2> 하버드 대학교 졸업자의 경제활동 범위	31
<그림 3> 학령인구의 증장기 추세	40
<그림 4> 최근 10년간 대학관련 주요 사업	52
<그림 5> MB 정부 고등교육 정책 흐름	52
<그림 6> 대전시 대학 교육의 비전	57
<그림 7> 대학과 지자체, 중앙정부의 대학협력 발전 단계	58
<그림 8> 대전시 대학협력의 목표와 추진방향	100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대전시의 발전 및 교육정책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의 대학이 육성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 현재 지역대학의 위기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지역대학 신입생들의 입학 경쟁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저조하고, 지역대학의 졸업생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 이러한 열악한 여건속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역대학과의 상생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 지역대학이 오늘날과 같이 위기 상황을 맞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 우선 대학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 경제, 문화시설 및 주거환경 등 삶의 모든 측면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다 대학까지 집중되어 있다. 학문의 질을 높이려 하거나, 취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측면에서나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학은 지역대학보다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둘째로, 그동안 지역사회차원에서 지역의 대학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의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해당 지역에 배출하고, 지역 발전에 힘을 기울이도록 지방정부가 유도하여 지방대학의 발전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는 산학연관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셋째로, 상당수의 지역대학이 학과의 신설 등 양적 팽창에 주력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대학이 외형만 갖추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반대로 지역대학을 발전시켜 지역 사회를 선도할 혁신주체로 육성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 지역대학이 맞고 있는 위기에 대한 총합적인 지원 및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교육 및 교육여건의 개선만큼이나 우수학생 유치지원 및 졸업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대학과 지자체 및 지역경제 관련 단체와 연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이렇게 하여야만이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을 살려내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가는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 사실 지역대학이 대전광역시의 경제·문화 및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역대학 육성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지역화·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인재육성 정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별 인력수급 및 경제발전의 부조화·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인재 개발정책을 추진할 때 개별 지역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구체적 정책 집행시 관련 지역주체 및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는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지식기반의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따라서 지방대학의 육성없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역의 발전없이 국가의 발전 또한 있을 수 없으므로, 지역대학과의 상생방안 마련은 지역 및 국가발전의 필수요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대학교육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지역사회의 대학교육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부분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평가결과, 교육 수요자인 대학생,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기로 한다.
 - 지역의 대학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서 대학교육의 상대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과제, 대학과의 협력을 위한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코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지역교육 발전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의 기본적인 지원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교육 관련 정책 조사를 위한 문헌조사, 기초 현황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검토, 관련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 자료, 대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 또한 대전지역의 지역인재 유출입 구조를 분석코자 함. 인재 유출입의 경로는 다양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신규취업에 의한 유출입경로와 대졸 학력 경력직의 이직 및 전직으로 인한 지역간 이동에 의한 유출입 경로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개념 검토
 - 대학의 이념과 기능, 대 지역사회 역할의 새로운 조류
 -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자원의 활용, 혁신자원으로써 대학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모델
- 지역대학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검토
 - 중앙정부의 시책 및 그동안의 대학지원 추진현황 및 문제점 검토
 - 지자체의 대학협력 시책 검토 및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 검토
- 대전시 대학생의 구조 및 이동 분석
 - 대전시 대학인재에 대한 개념 및 범위 규정
 - 대전시 대학인재의 지역간 유출-유입 추세 및 구조 분석
- 대학생 정책협력 및 지원 요구 설문 분석
 - 대학생의 대전광역시 정주의식 및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대전광역시 대학정책지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중점 과제 설정
- 대전광역시의 효과적인 대학협력 방안 도출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전시에서 추진 할 수 있는 “대학협력” 정책방안을 도출
 -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 모색, 목표 설정, 세부 실천과제 제안

2. 연구 방법

- 추진 정책 및 사업 내용 분석
- 대학생 대상 정책수요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

- 분야별 전략과제 발굴
- 장·단기 전략과제별로 세부 실천과제 도출
- 일반적인 학문적 접근보다는 활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 강구
-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진행

제 2 장

지역과 대학협력에 관한 논의 검토

제1절 기존논의 검토

제2절 연구방향 정립을 위한 개념 검토

제3절 지역과 대학협력 국내외 사례검토

제2장 지역과 대학협력방안에 관한 논의 검토

제1절 기존논의 검토

1. 용어의 정의

1) 지역(사회), 지방대학, 지방정부

- 본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지역 사회, 지방대학, 지방정부는 ‘지방’이라는 의미적 차이로 인해 혼동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각각에 대한 조작성 정의를 내린다.
- 국어사전상의 ‘지방’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지방(地方) : ① 어느 한 방면의 땅, ② 한 나라의 수도나 대도시 이외의 고장을 지칭한다.
- 지역(사회)은 ‘각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상의 외부 환경’을 의미하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해당된다.
- 지방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의미한다(사전 상 ②의 의미를 가진다)
-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존재하는 제도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작게는 시, 군, 구에서 넓게는 시, 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사전 상 ①의 의미를 가진다).

2) 연계와 협력

- 연계와 협력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 연구에서 대학의 지역 연계는 대학의 지역 협력과 같은 의미이다.

3) 산학협력

- 산학협력은 대학교육과 산업 현장간의 괴리를 줄이고, 산업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대학과 산업현장 간 협력을 통해 실업, 인력난, 기술개발 부족 등을 해결하려는 체제를 의미한다.

4) 클러스터

-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클러스터는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관련 기관,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연구 역할을 하는 대학과 연구소, 생산을 하는 기업,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컨설팅 기업 등이 한 군데에 모여 정보 지식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기술, 지식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5) 유형화

- 어떤 현상의 하위요소들이 서로 비슷하고 공통되는 성질과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공통된 성질을 가진 하위요소끼리 분류하여 그 특성을 찾는 것이다.
 - 이 연구에서는 특정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공통된 특성을 가질 때 이를 묶어 하나로 유형화할 것이다.

2. 관련논의 검토

1) 일반적 논의 사례

-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여러 주체 중에서 축소하여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하여 연구된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부 선행연구로 아래와 같은 유사연구들을 검토하였다.
- 우선,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방대학과 지방정부간의 협력방안](윤영채, 2004)을 들 수 있다.
 - 이 연구에서는 대전·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충남대학과 충청남도가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발전의 ‘혁신 클러스터’로서 대학은 첫째, 재교육 및 평생교육 센터로의 역할, 둘째,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센터로의 역할, 셋째,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교과내용과 대학의 특성화이며 충청남도의 역할은 첫째, 행정패러다임의 전환, 둘째, 산·학·연·관 클러스터의 구성 및 운영, 셋째, 지역인재의 활용에 대한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다.
- 다음은 [대학과 지역발전] (박영한, 2001)을 들 수 있다.
 - 이 연구에서는 21C 지식사회에서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부상되고 있는 대학의 역할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지역발전과 연관시켜 개념적으로 파악하였다.
 - 또한 대학연구가 활발하고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선진제국의 연구동향과 대학에 관한 연구중점의 변화를 개관하였다. 대학의 위상변화로 교육, 연구 중심에서 공공에 대한 봉사, 즉 사회봉사도 대학의 중요한 기능에 대한 인식의 이론적 탐색을 제시하였으며, 대학의 기능과 지역의 결합을 통한 지역 발전에 대한 개념과 대학 및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동향으로 지역의 교육요소, 도시계획 및 도시발전 요소, 지역의 혁신요소, 지역의 경제요소로서의 대학의 역할에 대한 연구동향, 관점 등을 정리하였다.
-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과 과제] (정재욱, 2004)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연구에서 저자는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 대학의 과제와 역할 증대를 제시하였다. 과제로는 수도권 집중화로 열악한 지방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설명하고 문제점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방대학과 관련한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한 기술정책의 집중성이 혼란, 실적과 사업주체가 불명확으로 운영을 둘러싼 갈등발생으로 비효율적인 요소의 증대와 기타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산업과 연관성 부족으로 중복 분산투자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역설하였으며 대학의 역할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대학의 기능 중에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해당하는 지역교육 프로그램, 시설 개방, 사회봉사 등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 이 연구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들이며, 어떤 면에서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입지해 있어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캠퍼스 확장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 등의 맥락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기능이다.
- 대표적으로 최근 연구 중에 김지은(2010)의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사례에 관한 연구가 있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재생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식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아웃리치 파트너십 프로그램 (Community Outreach Partnerships Center, COPC)을 미국의 도시재생에 대한 변화하는 패러다임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일리노이 주립대학 시카고 캠퍼스의 지역협력프로그램(UICNI: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Neighborhood Initiative)을 분석한 것이다.
 -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지역사회 파

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을 도모한 프로그램은 COPC가 유일한 사례이고 이 프로그램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로 상향식 접근에 의한 대학과 지역사회 간 협력관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대학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민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주체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발굴, 제안, 계획하는 지역발전 관계”로 나타난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 즉, 지역협력프로그램(UICNI)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UICNI Community Impact Report)를 분석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주민 수는 2004년 240,238명에서 2008년에는 593,162명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그 숫자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7년에는 약 818,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추산하였다.

- 이 연구결과로부터 한국형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과 이를 통한 지역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7년에 류연택·정희선(2007)도 같은 맥락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들 연구 시각은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봉사자로서 갖는 기능을 토대로 한 접근방식으로 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설개방, 재학생 자원봉사 등과 같은 대학의 사회봉사 역할(안영진, 2007; 한상훈, 2001)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 류진석(2007)의 연구는 지역복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지역대학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이 Amenity 또는 Service delivery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다.

3)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 등에 관한 연구

○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체가 계획의 주체가 되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개

선이나 서비스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드물다.

- 일본의 대학 입지정책에 관한 사례 등을 통해서 입지정책 실행 과정 중에 또는 그 후의 단계에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호주체가 되어 직접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적절한 사례 정도가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 국내에 손승호(2007)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일본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사례들을 찾아 연구하려고 하였다.
- 홍형득(2010)의 연구도 럿거스 대학의 과학기술지식 생산 및 흐름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면서 첨단산업단지 등 연구시설투자와 관련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밝히고 있다(홍형득, 2010:327).
- 대학의 연구시설투자로 인한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건립 등 테크노파크 조성 과정에서의 협력방식, 상호관계 등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이성근, 1996;김정홍 외, 2009).

4)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을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정도로 분석한 연구

- 안영진(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 독일 대학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독일의 각 대중소 도시에 위치한 대학들이 그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재지에 어떠한 영향들을 끼쳤는지 주로 독일에서 산출된 통계 또는 지역생산성 관련 데이터 자료를 검토하여 경제적 영향의 정도를 정리하였다.
 - 이와 함께 대학의 고용인, 대학생, 관련자들의 각종 지출이 지역에 소득과 고용과 관련하여 얼마만한 파급효과를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 김형주(2005)의 연구도 미국 지역대학과 기업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IT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 김정민(2010)은 목포대학이 목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 주로 목포대학의 교수들이 지역사회의 혁신연구, 공식회의 등 지역혁신을 위

한 핵심적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 이 조사는 특정 대학의 교원(교수, 학생, 교직원 등)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했는가 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한 지역대학에 그 연구의 대상이 한정되어 수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5) 대학의 연구기능이 지역사회(민간기업)에 미친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이 분야의 연구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기종·박병무 (2010)의 연구가 있다.
 - 이 연구에서는 권역별 주요 우수대학에게 지원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그 일부인 산학협동 연구비 자료를 분석해서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분야 협력관계를 검토하였고, 권역별 선도산업의 상대적 부합성을 비교하여 지역적 특성마다 크게 다른 산학협력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지역의 특화산업에 따른 지역대학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달리하여 각각의 지역사회마다 지역의 특정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이에 속하고 있다.
 - 대전시의 지역발전정책을 정할 때 기초연구자료들로 많이 활용될 수 있다.

6) 대학의 입지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 이용환 외 (2008)의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 인프라를 확충에 대학의 설립 또는 유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도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역에 유치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논의를 하고 있다.
 - 그리하여 대학이전 등의 정책을 포함하여 이전 희망 대학 및 기존 대학들의 지원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법적 근거와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 유치 및 육성이 광역 차원의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에 왜 필요한지 등 다각도로 분석을 하였고, 일본 등 외국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 이 연구가 전형적으로 대학의 입지결정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폭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례가 된다.
- 논의 내용 중에는 대학 유치에 필요한 대내외적 여건의 분석, 경기도에 맞는 대학유치 방식 및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7) 대학의 교육 기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 문남철(2010)은 대학졸업자에 초점을 두고 대학이 지역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학위 수여에 따른 지식과 기술을 전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지역대학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그 지역에 남아서 경제활동, 교육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연구결과에서 지속적으로 지역대학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소속 지역의 인적 자산이 되는 대학 졸업자들이 유출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만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해결책이 깊이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제2절 연구방향 정립을 위한 개념 검토

1. 지역대학의 의의

- 지역사회에서 대학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질문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이다.
 -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대학의 역할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 대학의 의미는 대학의 존재의의를 밝히는 문제이다. 지역대학의 존재가 지역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 대학은 다양한 학문과 전공이 공존하는 하나의 소우주이다. 소우주 속에서 다양한 전공교수들과 학생들에 의하여 다양한 지식들이 자유롭게 비판되고 검증된다. 따라서 대학의 존재의의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 첫째, 지역에서 대학의 존재의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지역의 대학은 고등교육이라는 고급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국가가 그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된다.
 -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금까지 엘리트교육체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소수의 지적 능력과 재원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였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는 그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에 접근하여 이를 발판으로 사회적 신분상승에 보다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둘째, 지역대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지식산업체로서 의의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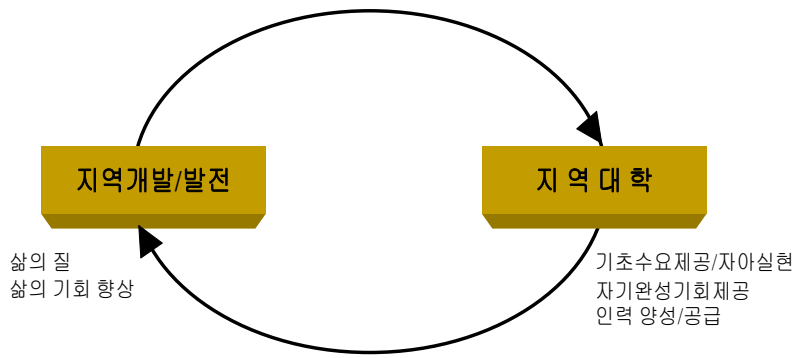
- 21세기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지식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이 존재하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서 최대의 축복이다. 21세기 글로벌시대, 정보화시대는 지식과 기술경쟁의 시대이다. 그리고 미래의 지식과 기술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고기능화 된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대학이야말로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 이와 함께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은 대학자체의 소득증대 기능이다.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들 인적자원들은 최고의 과학과 기술을 지닌 인력들이므로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더욱이 지식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이 될 것이므로 대학이야말로 미래의 최첨단산업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 셋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인 집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 지식사회에서 지식인은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파워센터이기도 한다. 앞으로 지식사회에서 대학의 참여공간은 무한히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학의 목소리는 지역여론을 주도하고 양심의 소리로 호소력을 갖게 된다.
 - 대학의 본질은 실험정신과 비판정신에 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참여공간이 확대되면 실험정신과 비판정신이 지역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이는 바로 지역사회를 이성의 통제 하에 두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성은 항상 진리와 정의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지역사회를 정의와 합의의 공동체로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 넷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의 훈련장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 지역대학에는 지역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대학의 모든 교육활동과 자치활동들은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의 의사결정구조, 각종의 선거행위, 학생들의 자치활동 등은 바로 지방정부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타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
 - 오늘날 교육은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은 민주주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주주의

실험은 바로 지역사회로 파급된다. 이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민주주의 생활양식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 다섯째, 지역대학의 존재의의는 지역문화를 젊고 건강하게 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 지역에서 대학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식과 기술은 타 지역 대학으로부터 빌려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문화적인 측면에서 타 지역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시대에 독특한 지역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
 - 대학은 속성상 늘 새롭고 젊은 문화를 창조한다. 대학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사상적 다원주의에 의해 비판되고 검증되므로 질적으로 건강하고 창조적이다. 21세기는 지식의 시대, 문화의 시대이므로 대학의 존재야말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천이다. 과거에는 종교가 문화를 창조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대학이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2.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 지역개발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총체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지역개발의 목표를 이처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볼 때 지역개발과 대학교육은 그 목적과 수단의 순환적 상호의존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역개발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자체가 지역개발의 한 구성부분으로 대학교육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며 개발의 주체와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과 거 → 현 재 → 미 래

<그림 1> 지역개발과 교육의 순환적 의존 관계

- 이러한 인력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기관은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 고교 등을 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학교육은 특히 완결적인 기능이 높다고 볼 때 대학교육과 지역개발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아가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요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대학의 사회개방,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 등은 대학과 지역개발간의 상호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지위상승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대도시 대학의 선호문제는 인구의 지방정착이나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또한 지방대학은 외지학생의 유입에 의한 지역소득증대로 발전 지향적 수출산업이 되고, 주민의 기초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지역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의미와 역할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3. 지역대학의 기본적 기능

-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본적 기능으로는
 - 첫째, 대학은 지역민들에게 대학시설을 개방하여 사회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고, 문화행사를 주관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다.
 - 둘째, 대학은 기업체의 요청으로 위탁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고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며, 경영전략을 컨설팅 한다든지 경영상담을 행할 수 있으며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 셋째로, 정부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 기능을 대신하여 직원을 장기간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보와 행정정보에 자료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 위의 내용을 표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

구분	대지역민 편익 제공	대기업 편익·협력	지방정부 협력
교육	- 공개강좌 - 사회인 학교수용 - 시설 개방	- 수탁학생 - 강사파견 - 기업내 교육수탁	- 직원연수 - 인력공급
연구	- 지역과 공동연구 - 지역문제 연구	- 공동연구 - 수탁연구 - 벤처	- 지역개발의 조사연구
정보제공	- 교육정보의 데이터뱅크 - 학습상담	- 산업정보 데이터뱅크 - 기술 및 경영상담	- 지역정보와 행정 - 정보의 데이터 뱅크
사업기획	- 지역사업기획 지원 - 지역네트워킹 지원	- 경영전략 컨설팅	- 시책업무 지원 - 각종 컨벤션 지원

4. 지역사회에 미치는 지역대학의 효과

-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이러한 다양한 효과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이러한 효과는 대학이 지닌 ① 인적자원공급, ② 교육기회공급, ③ 사회적서비스, ④ 지역문제의 진단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 대학은 대학이 지니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각종 지식과 정보·기술을 제공하거나, 대학의 여러 시설들을 지역에 개방하고 있다.
- 대학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기능을 살펴보면,
 - 첫째, 대학은 축적된 전문성과 기술·정보를 산·학·연이나 지역의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 참여, 공개강좌 등을 통하여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면, 그 정보와 기술의 샘을 보고 목마른 기업이 찾아오고 그 기업들에서 창출된 이익이 다시 지역과 대학으로 흘러 들어오는 순환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 둘째, 지역의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들 수 있다. 각종 전시회·연주회·발표회의 지역순회개최, 각종 공개강좌, 도서관 개방, 지역정보관리·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 셋째,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여도 역시 점차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농촌봉사활동 외에도 고아원·양로원 등의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 야간학교 교사 등의 봉사활동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

2) 인적자원의 양성·공급

- 인적자원이란 특정한 사회구성원의 지식, 기능 기타 모든 능력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이 바로 인적자원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인적자원의 공급은
 - 첫째,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공헌하며, 기술의 발전·보급으로 지역산업의 기반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 둘째, 이러한 물량적 기여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인력이 지역주민의 사회·정치 의식구조를 변화시켜 공동체의식과 발전지향적 의식을 향상시키고, 사회규범을 준수케 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셋째,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충원기능을 수행한다. 이 기능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기능으로서 교육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 각 개인을 적절히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대학은 지역사회의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성장과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람의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을 촉진하는 사회이동 촉진기능을 가진다.
 - 넷째, 인적자원의 양성과정에서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고용과 교직원 및 학생의 소비활동으로 지역소득증대효과를 주는데 이것은 직접소득효과, 간접소득효과, 유도소득효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소득효과는 지역주민의 고용이나, 대학의 지역입지에 따른 막대한 교육비의 지역 외로의 유출방지에서 나타난다. 간접소득효과로는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지역의 새로운 주민이 되어 이들의 소비지출과정이나,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새로 지역에 투자하는 데서 나타난다. 특히 대학 주변지역에서는 이러한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도소득효과는 앞의 직접소득과 간접소득이 지역주민들의 소비과정에서

다시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인적자원의 양성과정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간의 활발한 상호교류성이라는 지역성장의 동인을 확보할 수도 있다.
 - 지역활성력은 지역민의 연령구조와 교육정도와의 깊은 관계가 있다.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청장년층의 지역유입은 지역의 전반적인 활력성과 변화를 창조하고 변화에 능히 대응하는 기업가 정신을 부추기는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으로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는 타지역으로부터 학생·교직원들의 유입을 증가시켜 타지역과의 상호교류를 증대시켜 지역의 성장·발전을 부추길 수 있다. 지역도 하나의 유기체인 만큼 고립된 유기체는 무력하고 창조성이 결여되어 그 자체의 성장을 부추기는 에너지 생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3) 평생교육기회의 제공

- 대학은 지역주민에게 대학진학기회를 제공함을 물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 지역을 개발할 때 성취되어야 할 가치 중에서 핵심적인 가치는 삶의 질과 삶의 기회를 높이는 것과 자기완성·자아실현에 관한 것들인데 이중에서도 궁극적인 것은 모든 개인의 자기완성이다.
 - 이러한 가치실현에는 교육, 특히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지역의 핵심적인 기초수요의 하나이다.
 - 지역사회가 아무리 발전된 상태라 하더라도 대학교육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수요의 하나이며 삶의 질을 구성한다. 지역의 핵심적인 기초수요인 대학교육의 기회제공이 지역별로 균등하지 못하면 인구이동을 촉진시켜 지역간 격차를 노출시킬 수 있다.
 - 즉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얻기 위한 인적자원이 이동함으로써 집중된 지역이든 이출지역이든 심각한 여러가지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 각 지역에서 고등교육기회가 어느 정도 균등화되면 인적자원의 교육수준 및 기능정도의 지역간 상이성이 어느 정도 시정되고, 따라서 균등화된 교육수준은 소득 면에서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타 지역과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게 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 최근의 달라진 교육환경에서는 대학이 열린 대학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을 요구받고 있다.
 - 대학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지역문제의 진단·처방

- 대학은 지역의 과제, 문제 등을 대학의 교육·연구·봉사 등에 반영시켜 교육과 지역의 가치를 형성,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학교육은 단순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고전적 통념을 넘어서서 사회자체의 존속과 개발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대학은 단순히 인력을 양성·배출하는데 머물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그리고 사회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혁신기능을 수행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
 - 또한 대학은 지역의 문제와 과제를 대학의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지역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공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5.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

1) 의식개혁의 주체

-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상호지원과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 의식개혁의 문제로 지역민이나 지방정부는 장소적 의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리적 거리가 소멸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방이란 개념은 중앙과 반대되는 '저개발 또는 변방'의 대명사가 아니라, 자율과 창의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유산들이 잘 보존된 특색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2)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

- 지방대학과 지방정부 및 지역기업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지방대학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기업들과 지금까지보다 긴밀한 유대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학은 열린 대학이 되어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열린 대학이란 대학교육의 시·공간적 확장과 함께 기능적 확장 그리고 장소적 확장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 열린 대학의 대학교육은 ①정규의 대학교육을 학외자에게 개방하는 시·공간적 확장, ②대학이 지닌 교육자원을 학외자의 요구에 적합하게 재편성해서 개방하는 기능적 확장, ③대학의 공간을 개방하는 것과 대학 이외의 사회로 대학 공간을 확장하는 장소적 확장으로 되어야 한다.

3) 지역인재 개발시스템 구축

-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많은 지방대학에서 이 같은 인재개발 시스템이 개발되지도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인재들이 지방대학에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 따라서, 지역사회는 지방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인재들을 다양한 네트워크와 함께 창의적 사고를 통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실행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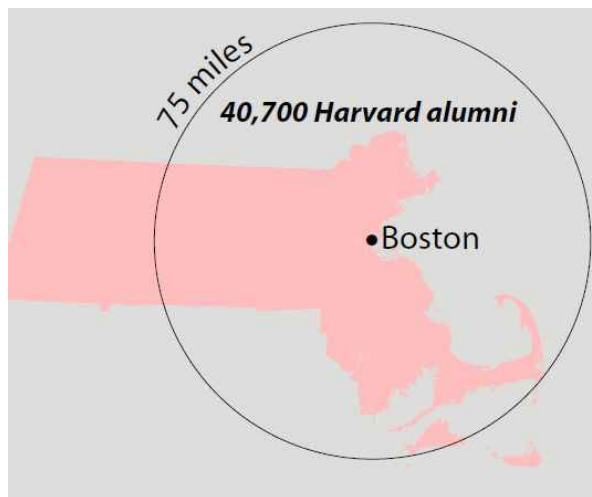
제3절 지역과 대학협력 국외 사례검토

1. 하버드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사례

- 이하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 발전에 관한 필요 조건과 긍정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기에 적합한 외국 대학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프랑스의 4년제 특수기술대학교, 일본의 리츠메이칸 대학교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 하버드 대학의 경우는 대도시권에 위치해 있고, 프랑스의 대학은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 대학들의 경우도 대도시권과 중소규모 도시에 위치한 두 가지 경우를 선택하였다.
- 하버드 대학이 위치한 보스톤 대도시권(Boston metropolitan area 또는 Greater Boston region)은 메사추세츠 주정부(Commonwealth of Massachusetts)에 속해 있는 보스톤 지역으로 5개의 카운티(County)가 연결되어 있다.
 - 미국에서 대도시 중 그 규모로는 7위 정도이며 보스톤 항구가 보스톤의 오래된 운송산업의 기반이기도 하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분야는 금융재정, 의료, 하이텍(HighTech), 대학교육과 컨설팅, 관광 등이다.
 - 이 지역을 기반으로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과 함께 있는 하버드 대학은 보스톤, 캠브리지 등에 대학과 소속 연구기관 건물들이 산재해 있다.
- 하버드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크게 몇 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교육 기능 측면에서의 영향을 살펴보면.
 - 하버드 대학교에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 매년 2만 명 이상이 등록하고 있

어 전 세계로부터 고급인력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학교가 단순히 학위를 가진 학생들을 배출한 것과 지역사회 발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 따라서 하버드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보스톤 지역에서의 인적 자원 확보와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우선 25세 이상 보스톤 대도시권 시민들의 4년 대학 수준으로 볼 때 전 시민의 41%를 차지, 대학원 이상의 학력수준은 18% 정도로 나타났다(2009년 보고서상 2006년도 기준).
-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열린교육, 전문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가 2002년 8,431명이었고, 이어서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총 6,400명이 응용교육(Extension School) 코스를 거쳤으며 이중에 700여명은 바이오, 컴퓨터, 환경, 박물관 등 전문경력직 취업을 위한 석사코스와 전문학위 코스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2008년 기준으로 보스톤 시로부터 약 75마일 반경 이내에 거주하는 하버드 대학 졸업생이 40,700명 정도로서 이들 졸업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 하버드 대학교 졸업자의 경제활동 범위

- 다음은 소비주체로서의 하버드대학의 대지역사회에 대한 기능이다.
 - 하버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로 인한 소비지출이 경제 활성화를 가져 오기도 하지만, 대학 자체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건설분야의 투자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배분하는 경제효과가 상당하다.
 - 하버드 대학은 2008년 기준으로 건설 분야를 제외하고,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약 17억 달러를 지출하였고, 이중 8억 5천 달러는 보스톤 지역 기업들에게 지불되었다.
 - 이로부터 5개 카운티 지역에서 약 6,400개 전일제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보스톤 지역 건설분야에만도 약 2,700개의 전일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 왔다(Appleseed, 2009).
 - 2만 여명의 하버드 대학 재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소비하는 행위로 인한 경제효과 때문에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학생들의 소비 패턴은 주로 주택, 음식, 교통 등에 관련된 비용으로 캠브리지와 보스톤 등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2008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2억 8,900만 달러의 소비효과가 있다고 추정하였다.
 - 보스톤 지역의 경우만 한정해서 나타난 직·간접 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3억 4,900백만 달러, 3,710개의 고용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 메사추세츠주 전체로는 3억 6,500백만 달러의 경제적 산출물과 3,850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고 추정한다.
- 다음으로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전달 기능이다.
 - 이 기능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 문화예술 활동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우수한 대학이 지역에 소재해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보완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보스톤 지역이지만 여기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으로서는

- 학력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가정의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과 학교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된다.
- 이 때문에 2005~2006년도 조사를 보면 하버드대의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보스톤 지역에 교사로 취업한 건이 400여건 이상이며,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에 자원봉사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당시 초중고등학교 8,500여명의 학생들이 이러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
 - 지역사회지원활동을 보면, 2008년 기준에서 하버드 대학의 전체 운영재원 중 34%를 이미 여러 목적의 지원활동으로 지출했으며, 1998~2008년 간 이러한 지역사회 기부 및 지원활동을 위한 비용지출은 매년 평균 12%씩 증가하여 현재 하버드 대학교의 가장 큰 지출항목이 되고 있다.
 - 장학금, 주택보조 등 학생들을 위한 재정지원도 1998년 이후 1억 2500만 달러에서 3억 63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주택보조 및 주택공급을 위하여 2000년 이후 하버드 대학은 보스톤과 캠브리지 지역에 주택지원 투자를 위해서 2,6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다. 이는 학생, 졸업생 등을 위한 주택공급에 사용된 비영리 투자이기도 하였지만, 주택 및 건설분야의 과잉투자 등 건설분야에서의 일정한 균형유지에도 도움이 되었다.
 - 이외에도 예술공연, 예술 및 학술관련 경연대회,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도 있다.
- 하버드 대학은 또한 우수한 대학의 연구 기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도 하였다.
- 하버드 대학은 각 연구소와 유관 연구소들을 통해서 보스톤 대도시에 위치한 기업과 비영리 연구기관들로부터 투자금이 유입되고 재배분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 아이디어 등이 지역의 유용한 경제적 자원으로 축적된다.
 - 2007년 하버드와 협력연구기관은 메사추세츠 주정부로부터 보건의료기금 총

액의 61%(14억 달러)를 지원받아 보스톤 대도시 지역을 바이오 분야 연구센터로서는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그리고 유전자 분야(genomics), 뇌신경과학(neuroscience), 줄기세포연구(stem cell research), 생명공학(bioengineering), 나노기술(nanotechnology) 등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 이는 새로운 단과대 설치, 새로운 분야의 연구 개척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한 결과의 산물이기도 하다.

○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하버드 대학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세, 소비세, 기업세 등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는 교육기관이다.

- 또한 민간부문이 하버드 대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정책적으로 여러 민간의 자발적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가 받는 면세혜택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 메사추세츠주와 관련 보스톤 대도시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 상당한 재원이 되기도 한다. 2008년 기준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정규직 봉급자들이 지불하는 소득세, 학교 관련 기업들이 지불하는 기업소득세 등 직·간접으로 약 2억 2,500백만 달러의 재정수입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한다(2002년 기준 1억 6,200만 달러).

2. 일본 코오베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사례

○ 코오베대학은 전전의 코오베고등상업학교와 코오베상업대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일본 관서지방의 명문 국립대학의 하나이다.

- 코오베대학은 일본 고등교육의 계층구조에서 비록 구제국대학 출신 대학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그다음 레벨에 해당되는 준일류급 대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상업대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경제학·경영학 분야는 다른 명문대학에

비겨 조금도 손색이 없다.

- 코오베시는 효고현(兵庫縣)의 현청소재지로, 일본 근대화과정에서 관서지방의 산업·상업의 중심지의 하나로서, 오사카의 외항으로서의 역할도 해왔기 때문에 모던한 분위기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 코오베대학은 이런 도시 분위기 속에서, 인접한 교토·오사카의 대학들과의 교류하에서 활발한 교육·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 문학부 지역연휴센터의 활동

- 코오베대학 각학부(단과대학)에서는 학문의 특색을 살려 지역연휴·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몇몇 학부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문학부 지역연휴센터는 일본사학을 전공하는 교원에 의해 설립되어, 역사학, 미술사, 지리학, 사회학 등 지역연휴에 관계하는 문학부 제전공과 협력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 이 센터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은 다음 네 가지에 걸쳐 있다.
- 자치체·지역주민과 연휴한 새로운 자치체사 편찬과 지역문화박물관 형성 사업
- 자치체·NGO와의 협력에 의한 역사자료의 보전사업
- 한신·아와지 대지진 자료의 보존 활용 사업
- 역사문화유산 활용기구의 구축 지원과 인재육성사업

2) 의학부 보건학과 지역연휴센터의 활동

-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살기 쉬운 지역만들기 사업
- 하이 리스크 아동을 갖는 부모에의 지원 프로젝트
- 가벼운 장애아와 사회적으로 적응이 어려움 가난뱅이 감독관
- 중증 장애를 갖는 어린이들에의 의료지원 서비스. 가벼운 장애아. 사회적 적응이 어려운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

○ 코오베시 수마구(須磨区) 아동보육 네트워크

- 지역의료에 있어서 외국인등록자의 모자보건사업의 존재방식에 관한 연구사업
- 거리의 보건실 사업

3) 농학부 지역연휴센터의 활동

○ 이 사업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농학부— 전교원, 직원, 이 연휴해서 협력해 가는 시스템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 농학부 지역연휴센터 를 베이스로 실시되고 있다.

- 과거 10년간 계속되어 온 효고현 농림수산부와의 협정에 의해, 각종 연구추진 사업이나 각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정보교환을 기초로, 그룹이나 개인 레벨 의 연휴관계를 더욱 넓히고, 활동의 전체상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투명도를 높이면서, 연휴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

제 3 장

지역대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제1절 중앙정부의 대학지원 사업 검토

제2절 대전광역시 대학협력 사업의 추진현황

제3장 지역대학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제1절 중앙정부의 대학지원 사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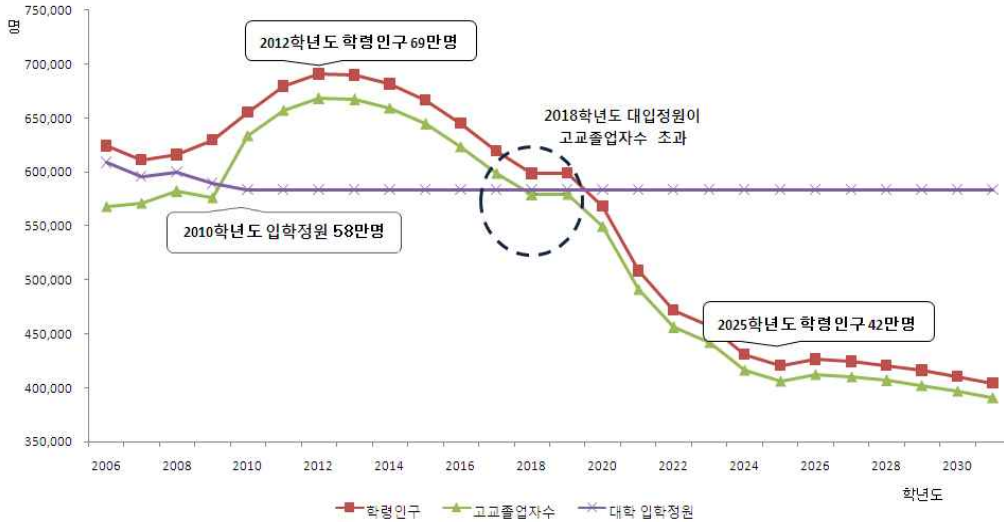
1. 중앙정부가 인지한 지역대학의 당면 문제

-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독특한 특성, 나아가 서열화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전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으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지역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구분되며, 정책별로 탄력적 적용의 대상으로 구분된다.
- 이하에서는 이러한 지역대학의 위상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며,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구조개혁 압력

- 대전을 비롯한 지역대학의 공통적인 문제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구조개혁 및 특성화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 현재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 등에 따라 대학설립과 정원은 증가하였으나,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일부 대학은 미충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2010년 대입정원 유지 시 2018년 이후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역대학을 포함하여 전체 대학은 대학의 정원 감축, 학과간 구조조정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 분야 중심 특성화가 긴요한 형편이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0년대 후반 이후 대학이 늘어나면서 '백화점식 학

과 운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 학생인구의 중장기 추세

2) 지역 인재의 유출 및 지역대학 위상 약화

- 지역대학이 처한 두 번째 문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수도권 경제력 집중 등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우수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회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고교 졸업생의 지역대학 입학이 줄어드는 현상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 2010년말 기준 수도권에 전체 사업체의 47.1%, 전체 종사자의 51.4%가 집중되어 있으며, 총 매출액 역시 전국 매출액 중 54.2%를 차지하고 있다('11. 12월 통계청 경제 총조사 잠정결과).
 - 이러한 현상과 비례하여 지역별 고교졸업자의 수도권 대학 진학 비율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 즉, 지역별 고교졸업자의 수도권 대학 진학 비율은 충남이 21.5%, 전남 18.3%, 충북 15.6%, 광주 14.4%, 대전 14.5% (2010년 기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하지만 지역대학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대학과 비교 시, 교육·연구 여건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표 2> 서울 소재 대학과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비교('11년 4년제)

구 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교수 1인당 연구비*	교수 1인당 논문수*	기술이전 수익 평균	대학원 진학률
서울소재 대학	30.1명	99백만원	1.01	455백만원	12.6%
지역대학	38.6명	52백만원	0.77	119백만원	6.6%

* 교수 1인당 연구비 및 논문수는 대학연구활동조사보고서('11년) 기준

-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서울소재 대학과 지역대학간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격차로 인하여 지역대학 졸업생에게 일종의 낙인 효과를 발생시켜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된다는 사실에 있다.
- 서울소재 대학 취업률(57.1%) 대비 지역대학의 취업률(53.7%)이 저조한 형편은 이를 대변해 준다.

3) 청년 취업난 속 취업 미스매치 여전

- 세 번째로 지역대학이 직면한 핵심문제 중 하나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다.
 - 그간의 산학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력 수요와 지역대학의 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가 미흡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 지역에서 대학 졸업생들은 공기업 및 대기업 등 한정된 전문·사무직종을 선호 하며, 지역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 현재 청년 취업자가 선호하는 직장은 공기업 > 대기업 > 전문기업 >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나 있다.
- 현실적으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전체 3.0%, 청년 6.3%, '11.8. 경황조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이 심화('11년 238만명 부족)되고 있음은 주목해 볼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지역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이론 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대학 인력양성과 지역의 산업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수요 일치도(2010년 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결과, 인문계열은 12.2%, 이공계열 19.0%로 만족도가 매우 낮은 형편이다.

2. 중앙정부의 대학 지원정책의 흐름

1) 문민정부(1993-1998)

- 문민정부에서는 1995년 5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을 필두로 네 차례에 걸친 고등교육 개혁방안들을 발표하였다.
- 즉, 1995년 5.31 교육개혁안, 1996년 2월 발표된 제2차 교육개혁안, 1996년 8월 발표된 제3차 교육개혁안, 1997년 6월 발표된 제4차 교육개혁안 등이 그것이다.
-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은 고등교육에서 형평성보다는 수월성 또는 경쟁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는 이후의 정권들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의 고등교육 개혁정책들은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의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부의 대학에 대한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경쟁을 통한 대학의 변화가 유도되었다.
- 문민정부가 지향한 고등교육 개혁정책의 목적은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이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였다.
- 열린 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국제화, 국

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전문대학, 개방대학, 기능대학 직업교육 활성화,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교육관계 법령체제 개편, 교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개혁,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 고등교육 체제 개선(고등교육의 수월성과 지방화를 위한 지원),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및 대입 전형방식 등이 그것이다.

2) 국민의 정부(1998-2003)

- 국민의 정부는 기본적으로 문민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기초를 그대로 계승했다 고할 수 있다. 획기적인 교육개혁안들이 제시되었다기 보다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들이 좀 더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 개혁방안으로는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 과 「한국교육의중장기 비전」 을 들 수 있다.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 에서 나타난 고등교육 개혁의 목적은 “지식강국의 초석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의 육성”이다.
- 고등교육 개혁의 목표는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지역 우수대학 육성, 학술연구 기반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 총장·교수 임용제도 개선, 학생복지 확대 및 학생활동 지원 등이다.
 -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 에 나타난 고등교육 개혁의 목적은 “선진국 수준으로 대학교육의 수월성 강화”, 즉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세계 수준의대학원과 지역 대학 육성이다.
 - 또한 고등교육 개혁의 목표는 교육여건 개선 및 자율성과 책무성의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 시스템 개혁 등이다

<표 3> 5.31 교육개혁 이후 역대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 정책

정부	개혁이념	개혁목적	개혁목표
문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신교육체제 구축 - 수요자 중심 교육 - 신자유주의(경제논리) - 문명사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패러다임 변화 - 한국적 교육문제 해결 - 교육체제 운용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의 수월성 추구 - 대학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 대학입학제도 개선 - 직업기술교육 혁신 - 대학설립준칙주의 - 학사운영 자율화 - 평가와 연계된 대학 재정 지원
국민의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소비자 중심, 시장경제 - 효율성 중심의 경제논리(신자유주의) -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교육을 - 문민정부에서 수립된 교육개혁의 실천 및 실행(현장착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강국의 초석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 고등교육의 수월성과 지방화(BK21) - 대학입학제도 개선 - 대학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중심대학, 지역 우수대학 육성 - 학술연구 기반 확충과 질적 수준 제고 -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 -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 - 총장·교수 임용제도 개선 - 학생복지의 확대와 학생 활동 지원 - 교육여건 개선 및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체제 개혁
참여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공동체주의 평등) - 연대와 협력의 가치 확대(분권과 자율) - 참여와 가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 과학기술의 질적 고도화 -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 문화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강화 -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 지방대학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입학제도 개혁과 대학 교육력 제고

3) 참여정부(2004-2008)

- 참여정부에서의 고등교육 개혁과 관련된 의제는 크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과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으로 구분된다(2003.2.2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서는 대학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육성하는 ‘권역별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기술집약단지(테크노파크), 소규모 기술혁신센터(RRC, TIC, SRC, ERC) 등 각 부처 지역기술혁신사업 확충, 지방대학을 지역 연구개발(R&D)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육성 기반조성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에서는 교수회 법제화와 대학 지배구조 개편,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사업, 학벌 타파와 대학서열 완화사업,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 고등교육 개혁의 목적은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며, 고등교육 개혁의 목표는 고등교육 보편화,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우수인력 양성 가시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의 기틀 마련 등이다.

4) MB정부(2008년 이후)

- 이명박 정부는 3대 목표로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기초원천연구 진흥”,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유치”를 제시하였다.
- 우선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화,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 연구개발과 인재양성간 연계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또한 기초원천연구 진흥을 위해 기초원천 연구비 비중 25%('08)→ 50%('12) 확대, 우주·극지·해양 등 거대과학 투자 내실화, 원자력 등 미래에너지기술 개발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그리고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유치를 위해서는 과학영재학교 확충,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글로벌 우수 과학자 유치 및 공동연구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3.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사업

1) BK(Brain Korea)21 사업(1999~2012)

- 고등교육의 교육·연구력의 심각한 저하와 낮은 연구수준을 극복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본 사업에는 1단계 사업(1999~2005)에 1조 3,421억원 투자, 2단계 사업(2006~2012)에 1조 7,216억원이 투자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우수한 고급인력을 양성하며, 이에 적합한 대학 학사제도의 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또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인건비 지원, 국제 교류협력 활동 지원, 혁신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 BK21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집행이 아닌 대학별 나눠먹기식 배분, 기금부실 운용 및 불법 전용 등이 문제가 되었다.
 - 또한 평가지표가 SCI 논문 수 중심의 계량적 평가에 치우쳐 논문중복 게재 등 실적 부풀리기, 사업 종료 후 실적평가 부실 등 역시 문제가 되었다.

2) 대학경쟁력 강화방안(2003)

- 2003년 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 대학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확대, 대학구조조정사업 추진을 제시하였다.
 - 또한 경쟁을 통한 교육·연구력 제고를 위해 대학 연구역량 제고, 지방대학 육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인력양성을 제시하였다.

- 그리고 대학 지원정책 전환을 위해 대학 유형 및 특성화에 기초한 정책 추진,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를 제시하였다.
-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은 의학, 법학 전문대학원 등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 그러나 자체적 개선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과중한 부담이 되었으며, 지나친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 대학 지원이 편중되었다.

<표 4>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중점 추진과제

정책과제	정책방향	내용
대학자율역량 강화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확대 대학구조조정사업 추진	대학규제개혁 자율적인 학사행정 평가제도 혁신 공부하는 대학여건 조성 국립대학 연합체제 구축 사립대학간 자발적 연수·합병 및 퇴출 학생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대학경영의 민주성·효율성 제고
경쟁을 통한 교육·연구력 제고	대학연구역량 제고 지방대학 육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인력양성	연구중심대학 집중 육성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계획 수립 추진 대학 연구지원 방식 개선 우수 이공계 연구인력 확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추진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대학원 활성화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산학협력단 운영 활성화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촉진 대학교육의 국제화·정보화
대학 지원정책의 전환	대학 유형 및 특성화에 기초한 정책 추진 선택과 집중화에 의한 투자 확대	대학유형화의 자율적 유도 대학유형에 따른 행·재정 지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확충

자료 : 유현숙,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3) NURI(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2004~2008)

-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증진함으로써 고등교육을 통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게 되었다. 본 사업에는 2004~2008년까지 1조 2,400억원이 투자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지역 혁신체제(RIS) 구축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 또한 사업 예산을 비수도권 권역별로 배분하고 권역 내에서는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해 우수한 사업단에 집중 지원하였다.
- NURI사업은 성취도 하위 사업단의 경우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과다 지원, 비효율적인 해외 연수 등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교육과정 개선과 대학의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지 않고 과거와 유사한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과 미흡한 산학협력 진행 역시 문제가 되었다.
 - 교육과정, 인력양성 중심의 지원을 지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사업의 성과 평가에 치중하였다.

4) 대학구조개혁방안(2004)

- 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대통령 보고 시 구조조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국립대학 통폐합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했으며, 공주대-천안공대, 강원대-삼척대, 전남대-여수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교육대 등 10개 대학 통폐합이 과제가 되었다. 그 외 대학 구조개혁 선도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 대학구조개혁방안은 대학 내외의 반발에 부딪혀 통폐합 진전이 미흡했으며, 통폐합을 통한 정원 감축은 미충원분 줄이기에 불과했으며, 단순 통합에 그치는 통폐합이었다.
 - 또한 정부 주도의 통합 및 경직된 통폐합 지침 규정, 이해득실로 인한 학내분

열,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합성 미흡 등이 문제시되었다.

5) 대학특성화 추진방안(2005)

- 「5.31 교육개혁안」(1995) 중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대한 문제 진단과 아울러 제시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특성화 분야로의 지역 및 학내 자원 집중,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을 특성화 방향으로 연계, 특성화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과제로 설정했으며,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2005),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2006), 재정지원 사업에 특성화 지표 적용 시범평가(2007) 등을 추진하였다.
- 대학특성화 추진방안은 일률적인 평가기준 및 방식 적용이 특성화의 획일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대학 자체 요건을 평가에서 더욱 고려해야 하며, 특성화 평가 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6) 국립대 법인화(2005)

- 1987년 대통령 교육정책자문기관인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이후 「5.31 교육개혁방안」(1995), 「국립대학 발전계획」(2000), 「국립대학 구조조정 개혁안」(2004),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방안(2005),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007) 등으로 이어져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국립대학을 행정조직에서 분리하고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운영체제에 자율성을 더하고, 대학 책임 하에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대학정보공시제도(2008)

-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제도로써, 학생·학부모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2008년 12월 1일부터 각 대학의 홈페이지와 대학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시해,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및 학과 선택이 용이해지고 기업은 더욱 우수한 고용 인력을 발굴, 채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 입학사정관제(2008)

- 입학사정관이란 전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학생의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하여 입학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를 일컫는 것으로서,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거주지, 가정환경, 출신고교의 특성 등 학생의 제반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얼마나 성취해 냈는가를 평정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입학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2008)

- 연구역량이 탁월한 해외학자를 국내 대학에 유치해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연구력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 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고급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도입하였다.
 - 본 사업에는 2008년부터 5년간 매년 1,650억원(총 8,25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

로, 융·복합 학문 분야의 새로운 전공·학과 개설을 지원하고, 기존 학과에 개별 해외학자를 초빙하며,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해 국내 교수진과 공동교육·연구를 수행하고, 2008년, 2009년 2차례 선정 평가를 통해 35개 대학 150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10)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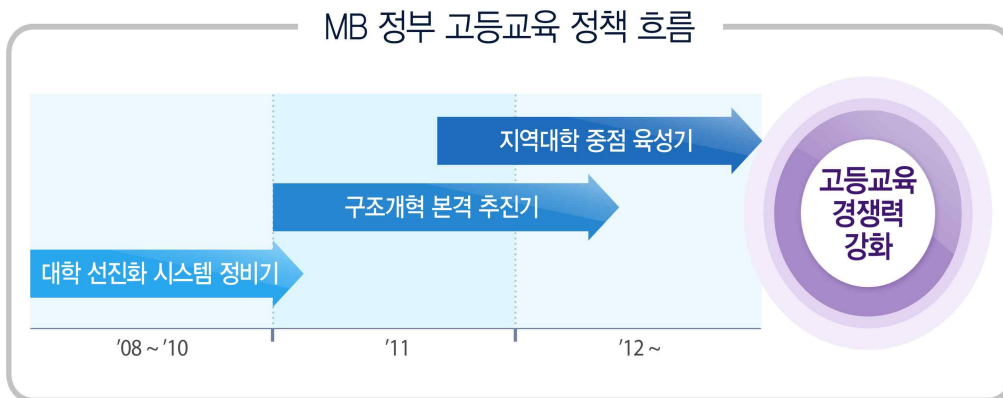
- 대학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필수 지표가 반영된 포물러에 의해 성과중심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나아가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본 사업에는 2008년 500억 규모로 64개 대학이 지원되었으며, 2009년부터 2,649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학도 확대되었는데,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의 자율적 재정집행(Block Funding)을 보장하였다.
 - 또한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각 대학은 인성, 전공 및 교양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교수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자율적으로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림 4> 최근 10년간 대학관련 주요 사업

4. 중앙정부의 지역대학 지원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최근 들어 중앙정부의 지역대학 지원 사업의 주요성과를 정리하면 이하의 내용과 같다.



<그림 5> MB 정부 고등교육 정책 흐름

1) 대학 선진화 기반 구축 및 구조개혁 촉진

- 무엇보다도 대학 선진화 기반 구축 및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2008년-2011년, 학사, 인사, 재정 등의 영역에서 66개 자율화 과제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 대학정보공시시스템 구축('08.12)을 통하여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또한 공시자료를 각종 재정지원사업 등에 활용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였다.
 -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지원하는 최초의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발전에 핵심적인 정량지표를 활용한 '블록 편당' 지원방식이 도입되었다.
-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상시적 구조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사업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지정을 통해 상시적인 구조개혁 토대를 마련('10년)하였으며, 2010년 최초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23개교를 선정하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대출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 단계로 상시 구조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 결과적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의 장학금 확충 및 자체재원 투입 등 다양한 자구노력으로 교육 여건 및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대학 자구노력 사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명대 : 대학개혁을 위해 향후 3년간 500억원의 대학개혁 예산 투입·대전대 : 향후 3년간 650억원 투자·경성대 : 매년 100억원씩 '14년까지 300억원 장학 적립금 확보 등 |
|---|

< 구조개혁 주요 운영 성과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교)·학자금대출 제한대학(17교) 발표('11)•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 ('10) 36개교 → ('11) 20개교•중대 부정·비리 적발 대학 폐쇄 : ('11) 2개교•국립대선진화방안 추진 : '12. 4월 현재 32개 대학(84.2%) 총장직선제 폐지 |
|--|

- 총장직선제 개선을 통하여 지역 국립대학 경쟁력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2012년 4월 현재 38개 국립대학 중 32개 대학(84.2%)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교직원투표)을 거쳐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었다.
 - 대내외의 역량 있는 총장이 학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31개 대학과 총장직선제 개선을 포함하는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지역기반 특성화 등 발판을 마련하였다.

2) 대학 교육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 ACE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대학의 특성화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다.
 - 지역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에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다.
 -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 ‘2008년~’2012년까지 9,979억원 (지역대학 7,773억원) 지원 (2008년) 500억원 / 64개교 ⇒ (2012년) 1,811억원 / 97개교
- ACE 대학(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을 통하여 선진형 학부교육 모델을 창출·확산하고 총체적 선진화를 유도하였다.
 - 대학의 강점과 건학이념 등 지역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다양한 학부교육 선도대학을 중점 지원

※ ACE 사업 지원 : ‘10년~’12년까지 1,500억원 (지역대학 1,055억원)지원
 : (‘10) 300억원 / 11개교 → (‘12) 600억원 / 25개교 내외
 ※ 지역대학 지원 : (‘10) 210억원 / 8개교 → (‘12) 400억원 / 19개교 내외

- WCC 사업 등을 통하여 전문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집중 육성을 통해 우수 전문대학 발전모델 정립 및 직업교육의 질적 기반 강화

※ WCC 지정 계획 : ('11) 7개교 → ('12) 14개교 → ('13) 21개교

- WCC 대학의 특성화 및 글로벌 수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WCC 대학별 특성화 분야 >

- | | |
|-------------------|-------------------|
| • 거제대 : 조선해양 | • 영진전문대 : 기계·전자정보 |
| • 대전보건대 : 보건의료 | • 울산과학대 : 자동차·플랜트 |
| • 연암공업대 : 전기전자·기계 | • 제주한라대 : 관광 |
| • 영남이공대 : 메카트로닉스 | |

- 전문대학 교육환경 개선, 학생 취업지원 및 대학별 특성화 추진을 통해 전문대학 취업률 등 주요 지표 개선

※ 전문대학 취업률 : ('10) 55.7% → ('11) 60.8%

※ 재학생 충원율 : ('09) 82.1% → ('10) 84.7% → ('11) 87.4%

3)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

○ 지역의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집중 육성으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 지역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세계적인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학기술대학 특성화 및 육성방안」 수립('11.7) 및 지원
- (5개 과기대 협력 촉진)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상호 교류 확대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12.2월)
- (기초과학(연) 캠퍼스 연계)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초과학(연) 캠퍼스를 연계하여 연구역량 강화 및 신진연구인력 양성 기반 마련
- 2017년까지 KAIST연합에 10개 내외, DUP(DGIST, UNIST, POSTECH) 연합에 10개 내외, GIST에 5개 내외 연구단 설치

<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 5개 과기대('12년 출연금) :
대전 KAIST(1,683억원), 광주 GIST(1,167억원), 대구 DGIST(693억원),
울산 UNIST(601억원), 포항 POSTECH

-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현장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개인연구비 수혜율을 제고하여 이공계 교수의 개인기초연구 수혜율을 확대함으로써 창의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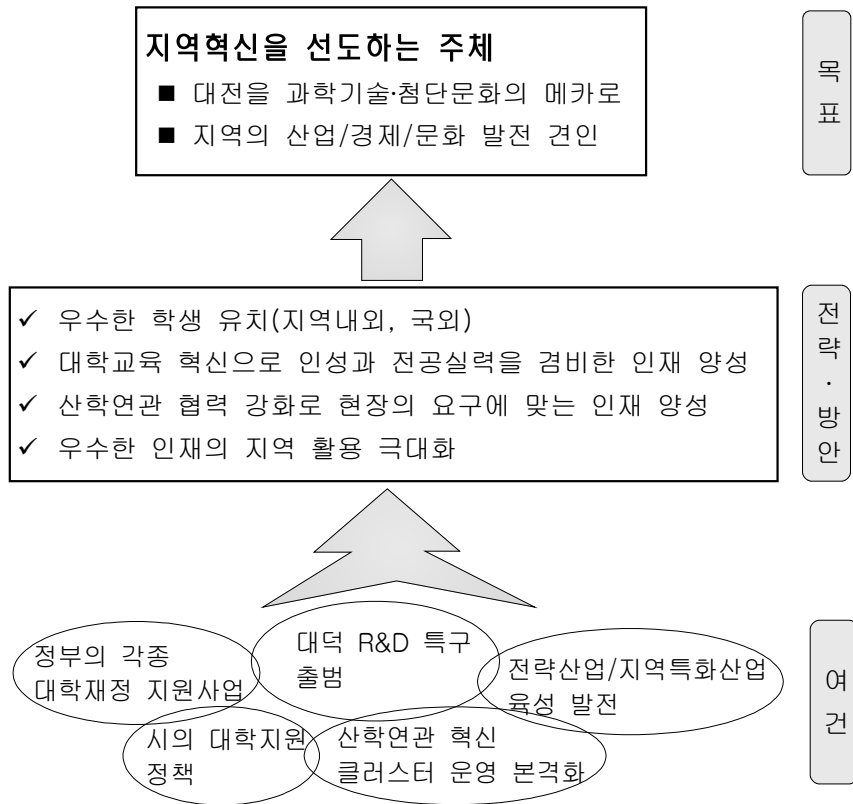
4) 지역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 광역경제권별 우수 산업인재양성 및 지역산업과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광역 선도산업 분야의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공급을 위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추진 사업으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취업 지원이 강화되었다.
- 대학 산학협력단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을 통한 대학과 기업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성과가 나타났다.

제2절 대전광역시 대학협력 사업의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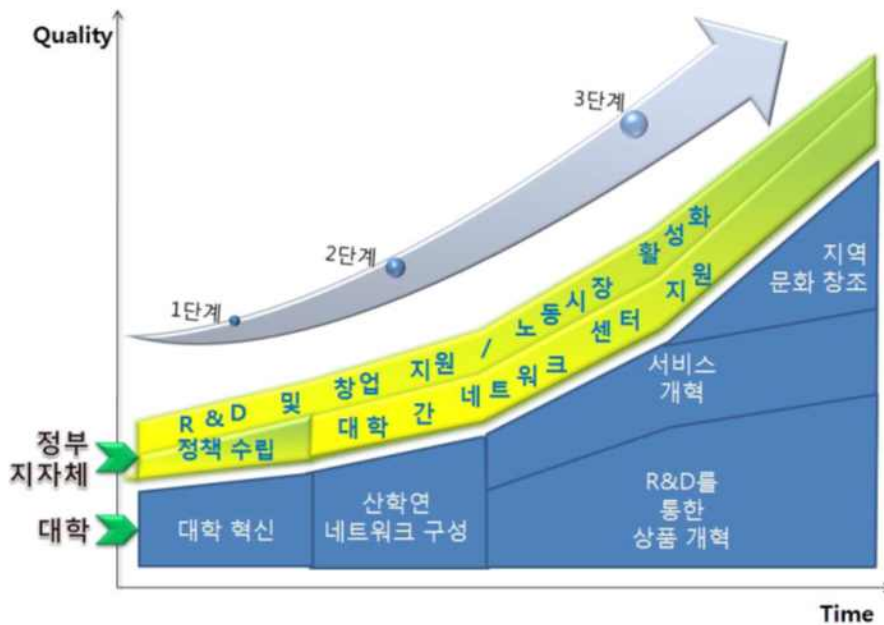
1. 대전시 대학협력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 대전시 대학교육의 비전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목표하에 지역내외의 여러 여건을 기반으로 하여,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이들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이러한 우수 인력을 최대한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대전시 대학 교육의 비전

- 이러한 방향 설정에 따라 그동안 대전시는 대학협력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왔으며, 타시도에 앞서 대학협력계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 각 기관과의 연계의 중심으로 활용해 왔다.
- 향후 이러한 지원과 협력사업을 통하여 대학혁신의 1차 단계에서 지역의 문화를 창조하는 혁신의 주체로 대학을 육성할 단계적 대학협력 및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7> 대학과 지자체, 중앙정부의 대학협력 발전 단계

2. 세부 추진 과제 및 사업들

- 이하에서는 2012년 대학협력사업으로 대학협력계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과제의 성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 2012년 추진한 사업은 총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아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전시의 대학협력 지원사업(2012년 대학협력담당 업무)

연합교양대학 운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대전권 대학발전 협의회 운영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충남대 로스쿨 지원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

- 각각의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 목표와 내용 또한 아래의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1. 연합교양대학 운영

- 대학생과 일반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인문학 강좌 실시
-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 방지

2.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 방학기간을 이용한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및 일자리 창출
- 현장중심의 행정경험과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체험 기회 제공

3.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 전문대학의 자체역량과 산업여건 등 타 전문대학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는 실무형 우수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원

4. 대전권 대학발전 협의회 운영

- 대전권 대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담회 형식을 정례화('04.1.28 발족)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 전문대학의 자체역량과 산업여건 등 타 전문대학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는 실무형 우수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원

5.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경제부담 감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6. 로스쿨 지원

- 대전시와 충남대 간의 로스쿨 설치 및 육성·발전을 위한 협약서에 명시된 협력내용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명품교육 도시를 추구하는 대전시의 위상 제고

7.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명	추진시기	참여인원 (명)	사업비 (천원)	비고
계			558,972	
외국인유학생후견인제결연식	4.6	105	비예산	
멘티-멘토단담의시간및대전탐방	7.20	68	비예산	
외국인유학생 한국체험여행	11.5	61	1,100	
외국인유학생 인턴십 운영	방학기간	30	28,512	
New Comer Day	3월, 9월	400	10,000	
유학생취업 설명회 개최 (유학생의 날 행사)	11.25	500	10,000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연중	8개 대학	28,500	
외국인유학생기숙사누리관 운영	연중		480,860	지방채 원금이자

○ 대전광역시는 대학협력 및 지원사업을 타시도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서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낳게 되었으며, 타시도에 비하여 대학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대학협력 지원사업의 보완

대학과의 연계 협력 애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체계 미흡

행정기관 간 업무 소통 부족

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분야에 집중

대학과의 협력사업이 일부대학 및 기관 지원에 편중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에 의존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 복지 등 대학생 생활지원분야사업 미흡

제 4 장

대학생 정책지원 요구 분석

제1절 대학생 정책지원요구 설문조사

제2절 대전지역 대학생 취업간담회 개최시 제출 의견

제4장 대학생 정책지원 요구 분석

제1절 대학생 정책지원요구 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대전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운영의 일환으로 20~30대 연령층의 의식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2030세대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세대공감 시책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됨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2. 2. 20 ~ 2. 29
- 조사대상 : 대전광역시 거주자 500명
(성별·자치구별 같은 표본수, 연령별 4세 단위 표본수)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면접조사/결과자료 코딩 및 분석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pm 4.38\%$ 포인트

3) 조사항목

- 대학생의 대전광역시 정주의식 및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대전광역시 대학정책지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중점 과제 설정

2. 조사 및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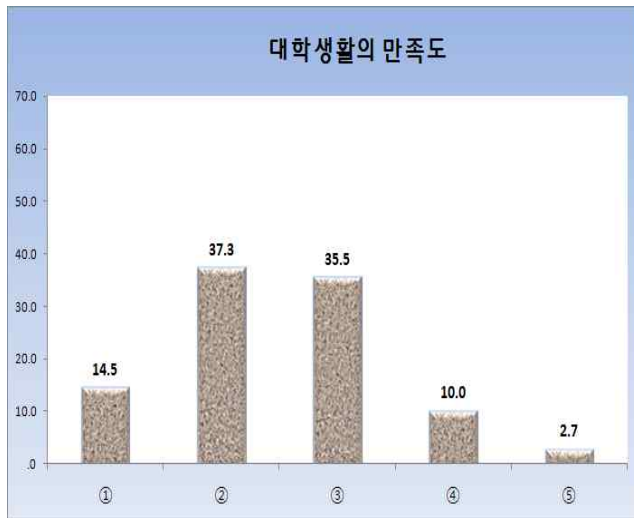
1) 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생활 및 생활여건 만족

○ 전반적인 대학생활 만족도

- 현재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1점으로 보통을 조상회하고 있으며, 만족하는 비율 또한 불만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매우 만족과 만족하고 있다는 비율이 71.8%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한 12.7%보다 매우 높은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항목	빈도	%
① 매우 만족	16	34.5
② 조금 만족	41	37.3
③ 보통	39	35.5
④ 약간 불만족	11	10.0
⑤ 매우 불만족	3	2.7
합계	1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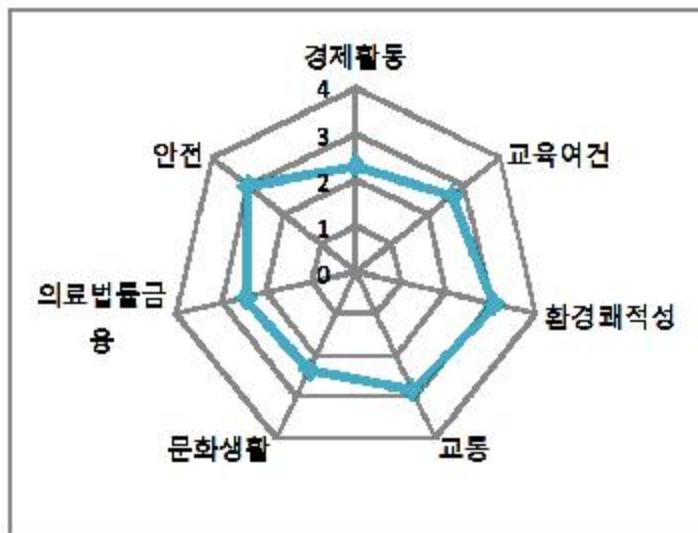


○ 대전시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 타도시에 비해 대전의 거주(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물어 본 결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전체 평균 2.67점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수준은 5점 만점 척도로 보았을 때, 보통의 측정항목인 3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로 대학생들의 대전지역 생활여건 만족도는 낮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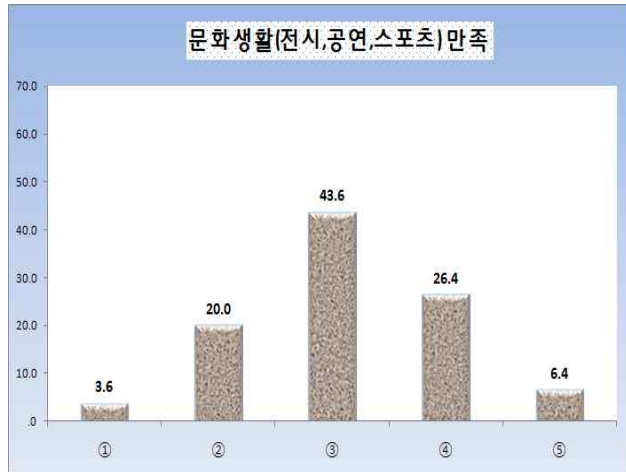
- 7개 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는 환경이 3.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안전(3.00) > 대중교통 이용 및 도로 관리(2.82) > 교육 여건(2.67) > 고급서비스(의료·법률·금융)수준(2.47) > 문화생활과 여가(2.36) > 경제활동(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문화생활 여건 및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시급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항목	점수
경제활동(취·창업,기업,쇼핑 등)	2.29
교육여건	2.67
환경(공원녹지,하천,공기) 쾌적성	3.07
대중교통 이용 및 도로 관리	2.82
문화생활(전시공연스포츠)과 여가	2.36
고급서비스(의료법률금융) 수준	2.47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안전	3.00
전체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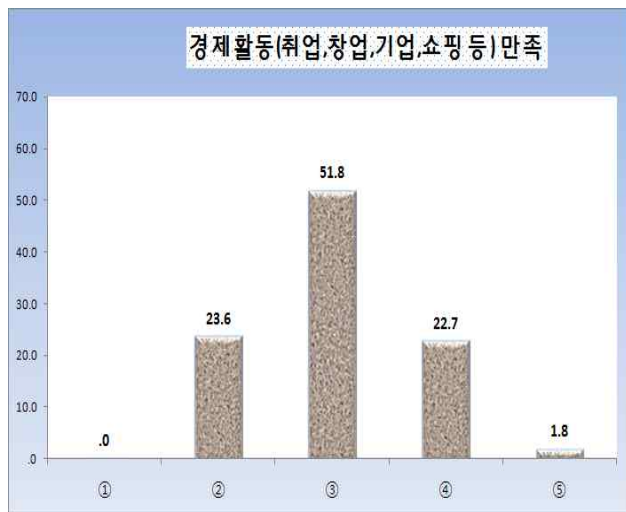
- 특히, 낮은 만족도를 보인 문화생활 여건의 경우, 그 만족 정도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유보적인 응답이 가장 빈도수가 높긴 하나, 만족하고 있다는 비율보다 불만족이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전시가 대학생들의 어떠한 생활영역에 대한 여건 개선이 시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항목	빈도	%
① 매우 만족	4	3.6
② 만족	22	20.0
③ 보통	48	43.6
④ 불만	29	26.4
⑤ 매우 불만	7	6.4
합계	110	100.0



-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정도 또한 다른 생활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영역은 취업, 창업 등 대학생의 최고의 관심사에 대한 응답 결과로, 만족비율이 문화영역과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항목	빈도	%
① 매우 만족	0	0
② 만족	26	23.6
③ 보통	57	51.8
④ 불만	25	22.7
⑤ 매우 불만	2	1.8
합계	1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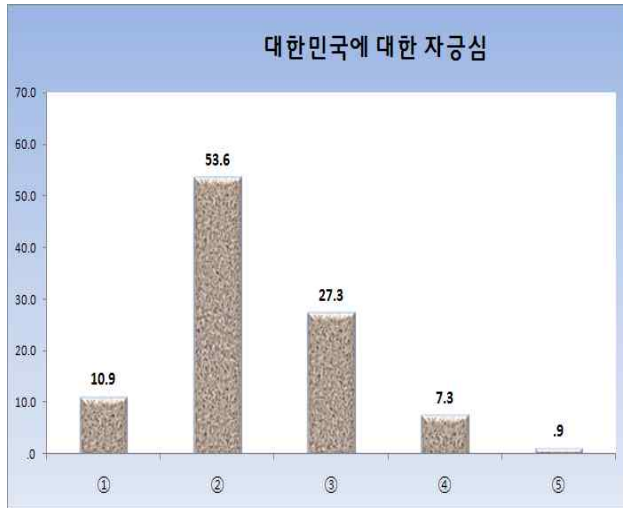


(2) 지역이미지 및 거주의식

○ 대한민국 거주 자긍심

-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은 자랑스럽다는 응답비율이 64.5%로 자랑스럽지 않다라는 비율 8.2%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학생활 만족도와 더불어 자긍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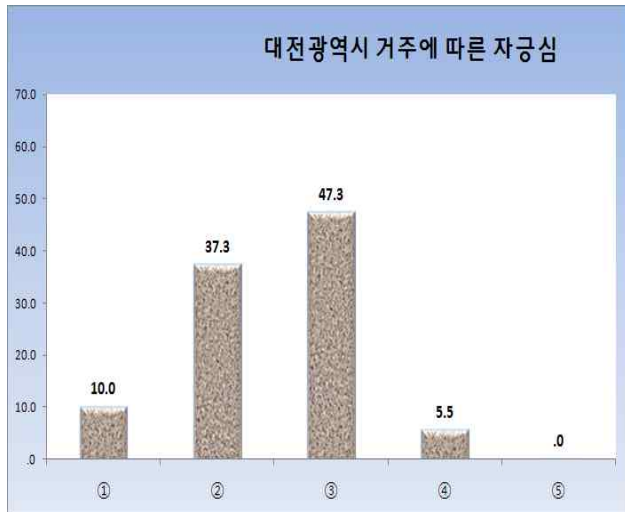
항목	빈도	%
① 아주 자랑스럽다	12	10.9
② 자랑스럽다	59	53.6
③ 그저 그렇다	30	27.3
④ 자랑스럽지 않다	8	7.3
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1	0.9
합계	110	100.0



○ 대전광역시 거주 자긍심

- 이에 비하여,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자랑스럽다는 응답비율이 47.3%로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비율 5.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비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보적인 응답인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으로의 풀림 현상이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전 거주에 대한 자긍심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에 따른 자긍심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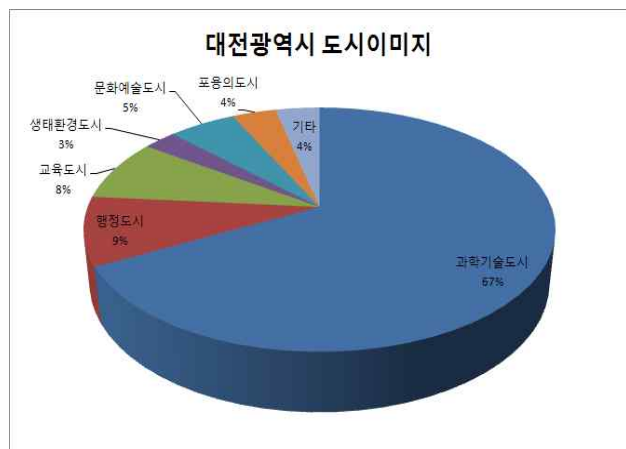
항목	빈도	%
① 아주 자랑스럽다	11	10.0
② 자랑스럽다	41	37.3
③ 그저 그렇다	52	47.3
④ 자랑스럽지 않다	6	5.5
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0	0.0
합계	110	100.0



○ 대전광역시는 어떠한 도시인가?

- 대전광역시를 대표할 도시이미지에 대한 조사결과 대학생들은 과학기술도시라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이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항목	빈도	%
① 과학기술도시	74	67.3
② 행정도시	10	9.1
③ 교육도시	9	8.2
④ 생태환경도시	3	2.7
⑤ 문화예술도시	6	5.5
⑥ 포용의 도시	4	3.6
⑦ 기타	4	3.6
합계	1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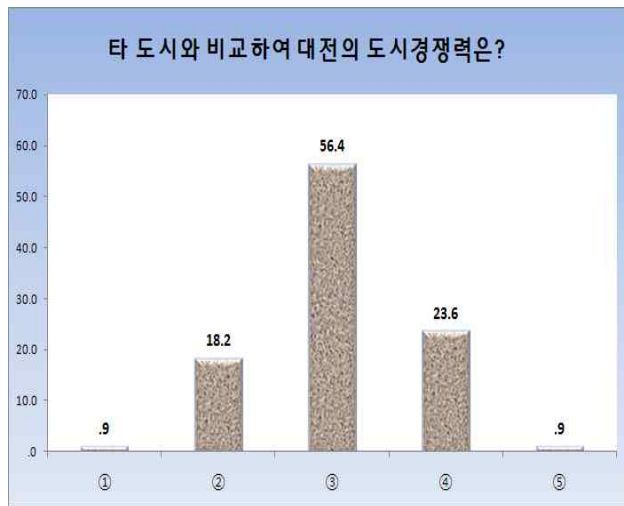


- 대전시의 인구유출과 관련하여, 대학생이 추구하는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 평가

- 대학생들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대전의 도시경쟁력이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높다라는 응답이 19.1%로 낮다라는 응답비율 24.5%에 비하여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타도시와 비교하여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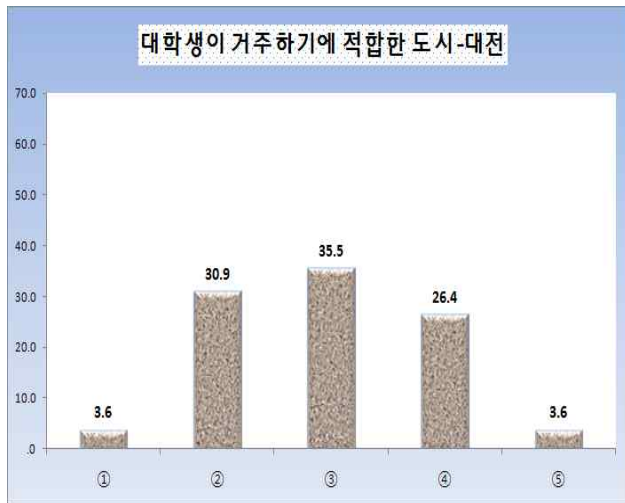
항목	빈도	%
① 아주 높다	1	0.9
② 높은 편이다	20	18.2
③ 비슷하다	62	56.4
④ 낮은 편이다	26	23.6
⑤ 아주 낮다	1	0.9
합계	110	100.0



○ 대학생 정주 적합성에 대한 인식

- 타도시에 비해 대전은 대학생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34.5%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3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이러한 응답비율은 긍정과 부정 모두 비슷한 응답결과로, 대전시가 대학생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대학생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도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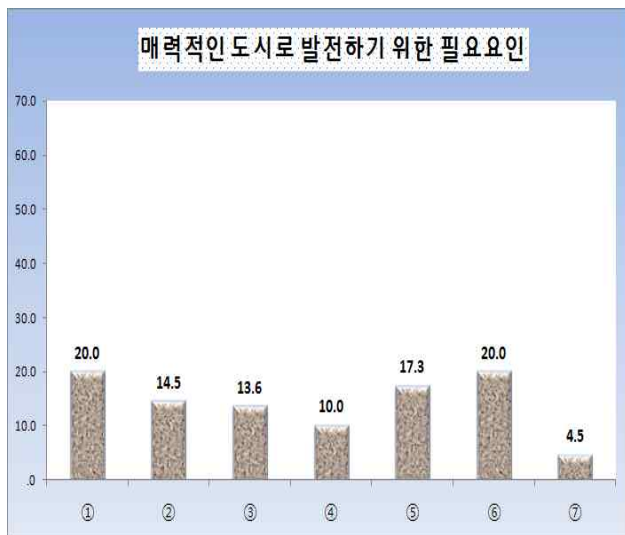
항목	빈도	%
① 아주 그렇다	4	3.6
② 그런 것 같다	34	30.9
③ 모르겠다	39	35.5
④ 그렇지 않은 것 같다	29	26.4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3.6
합계	110	100.0



○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 그렇다면 대전이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았다.
- 이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수준 높은 공연·전시(20.0%), 편리한 대중교통체계(20.0%),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	빈도	%
① 수준 높은 공연·전시	22	20.0
② 쾌적한 환경 (공원, 녹지, 하천)	16	14.5
③ 스포츠, 레저 공간	15	13.6
④ 독특한 도시디자인	11	10.0
⑤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19	17.3
⑥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22	20.0
⑦ 기타	5	4.5
합계	1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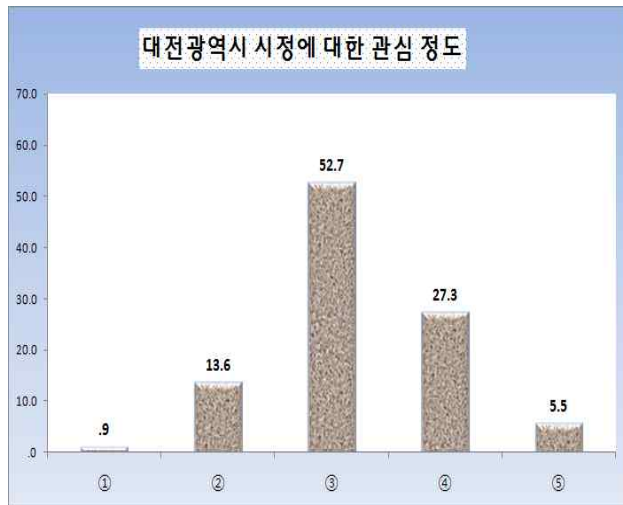


2) 대전광역시 시정과 의 소통

○ 대전광역시 시정에 대한 관심도

- 대학생들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보았다.
- 그 결과,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관심 정도에 있어 유보적인 응답인 그저 그렇다가 52.7%, 적다라는 응답이 32.8%, 많다라는 응답이 14.5%로 비교적 정책에 대한 관심이 소극적이고 냉소적인 것으로 나타나, 시정에 대한 대학생의 적극적 참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항목	빈도	%
① 아주 많다	1	0.9
② 많은 편이다	15	13.6
③ 그저 그렇다	58	52.7
④ 적은 편이다	30	27.3
⑤ 아주 적다	6	5.5
합계	1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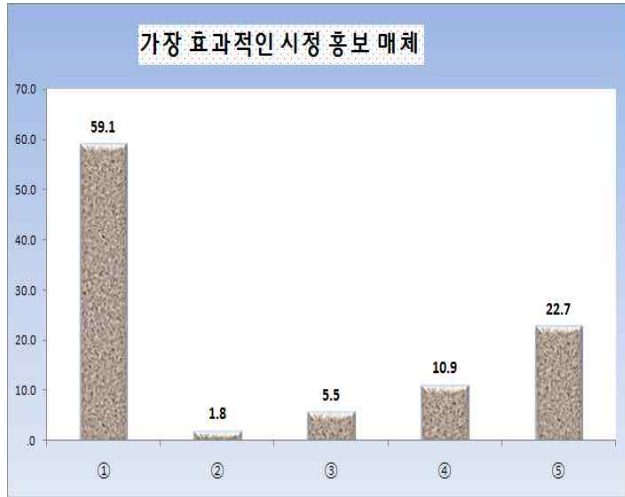
○ 가장 효과적인 시정 소통 매체

- 전술한 바와 같이 대전시의 각종 시책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시책의 스킨쉽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 보았다.
- 응답결과, 대학생이 대전광역시 시책 홍보시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생각하는 것은 TV방송인 것(59.1%)으로 나타났으나 SNS라고 응답한 비율과 인터넷신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지역 방송을 통한 시정 홍보 뿐만아니라,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 홍보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방안이 대학생에게 특화된 정보의 경우 필요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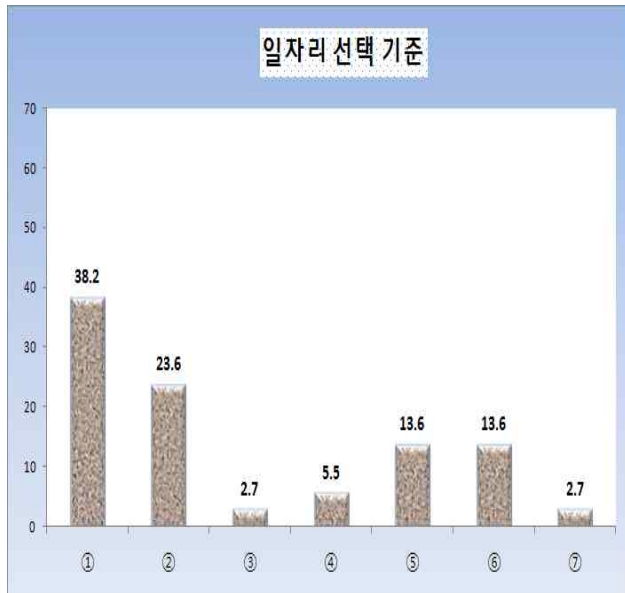
항목	빈도	%
① TV 방송	65	59.1
② 라디오 방송	2	1.8
③ 종이 신문	6	5.5
④ 인터넷 신문	12	10.9
⑤ SNS	25	22.7
합계	110	100.0



3) 취업과 일자리 시책 요구

- 대학생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취업과 관련된 시책이다. 대학생들의 취업 요구에 대하여 아래 몇 가지 질문을 구성하여 보았다.
- 대학생의 일자리 선택 기준
 - 대학생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고용안정성이 가장 우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보수 및 수입, 직업의 보람(하고 싶은 일), 전공과의 연관성 순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으로의 막연한 동경에 따른 취업 선택은 2.7%에 불과하여 향후 대전시에서 고용안정성이나 보수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외부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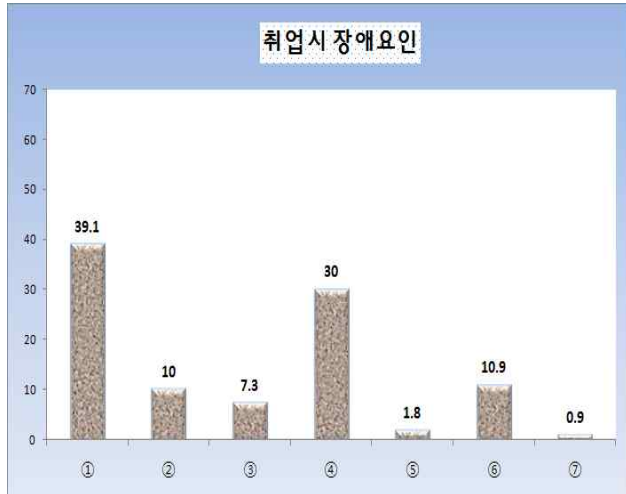
항목	빈도	%
① 고용안정성	42	38.2
② 보수 및 수입	26	23.6
③ 소재지(수도권)	3	2.7
④ 소재지(대전)	6	5.5
⑤ 직업의 보람 (하고 싶은 일)	15	13.6
⑥ 전공과의 연관성	15	13.6
⑦ 기업·기관의 인지도	3	2.7
합계	110	100.0



○ 취업 장애요인

- 대학생들에게 있어 현재 취업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어 본 결과, 좋은일자리 부족 39.1%, 지방학교 출신 차별 30.0%, 일자리 정보 부족 10.9%의 순으로 나타나, 좋은 일자리 마련이 정책적 과제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더불어 취업장애요인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출신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일자리 정보의 체계적 전달체계 등을 지원정책으로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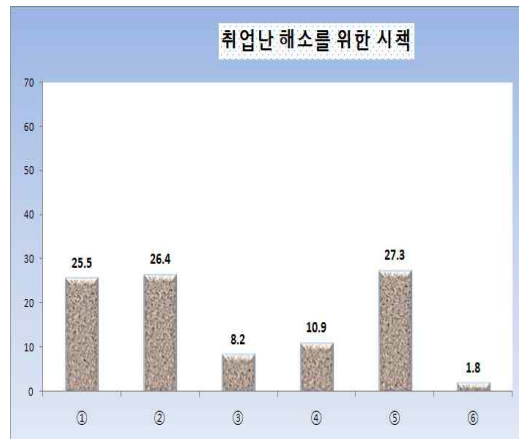
항목	빈도	%
① 좋은 일자리 부족	43	39.1
② 개인능력 부족	11	10.0
③ 학력 부족	8	7.3
④ 지방학교 출신 차별	33	30.0
⑤ 성차별	2	1.8
⑥ 일자리 정보 부족	12	10.9
⑦ 기타	1	0.9
합계	110	100.0



○ 지자체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시책 요구

-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전광역시가 우선해야 할 정책은 지역출신 청년 고용기업 우대, 지역기업 취업정보 제공, 청년고용할당제 및 장려금 확대가 모두 비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응답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전광역시는 직접 대학생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보다는 취업이 지역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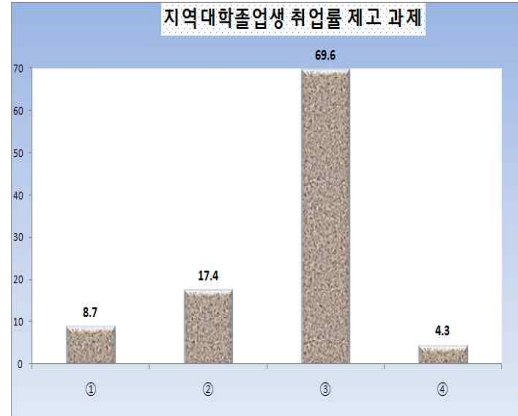
항목	빈도	%
① 청년고용할당제, 장려금 확대	28	25.5
② 지역기업 취업정보 제공	29	26.4
③ 기업 인턴십 지원	9	8.2
④ 개인능력개발(학원비 등) 지원	12	10.9
⑤ 지역출신 청년 고용기업 우대	30	27.3
⑥ 대전시 주관 취업캠프 운영	2	1.8
합계	110	100.0



○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의 취업률 제고 역할

-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가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 제공이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응답 결과에서 알 수 있었던 점은 지자체나 지역산업체가 실질적인 현장 위주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항목	빈도	%
① 재정적 지원	10	8.7
② 교육 인프라 구축	19	17.4
③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 제공	77	69.6
④ 시설제공 및 공동연구	4	4.3
합계	110	100.0



4) 지역사회 기능과 지역대학의 역할 인식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간 협력 필요성 인식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간에 협력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대학생의 응답결과,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9.6%,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30.4%로 필요없다는 응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간의 협력이 긴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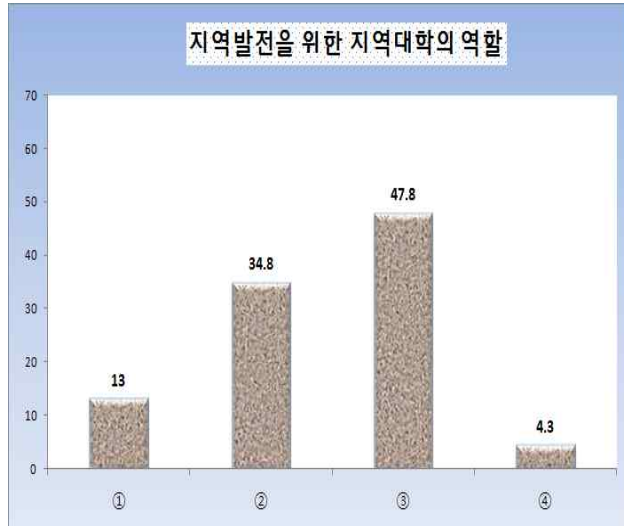
○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대학이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

-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대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물어 본 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적 풍토 조성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 배출이라고 응답하였다.

-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자원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창의적 발상들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가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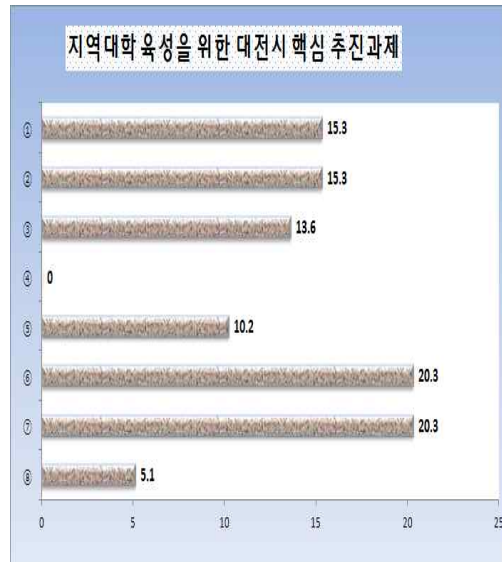
항목	빈도	%
①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제공	14	13.0
②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배출	38	34.8
③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적 풍토 조성	53	47.8
④ 지역발전비전의 제시	5	4.3
합계	110	100.0



○ 지역대학 육성을 위하여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 지자체로서 대전시가 지역대학 육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결과, 지역산업단체를 포함하여 지역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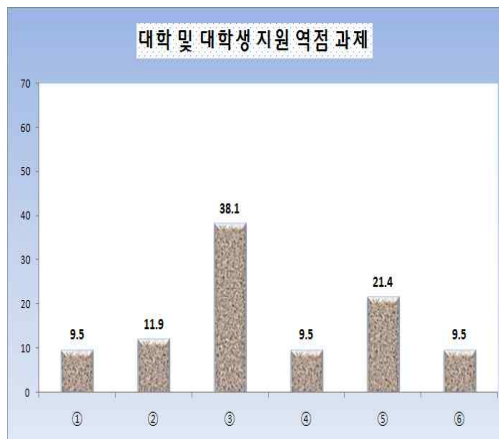
항목	빈도	%
① 지방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	17	15.3
②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17	15.3
③ 지역내 대학간 협력체제 구축	15	13.6
④ 대학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0	0
⑤ 교과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확대	11	10.2
⑥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체의 지역대학 지원 강화	22	20.3
⑦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22	20.3
⑧ 기타	6	5.1
합계	110	100.0



○ 지역대학 및 대학생 지원을 위한 대전시 역점 과제

- 지역대학, 특히 지역의 대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전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 영역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대학생들에게 물어 본 결과, 대학생 참여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과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항목	빈도	%
① 시와 대학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구축	10	9.5
② 캠퍼스의 지역화/지역의 캠퍼스화 추진	13	11.9
③ 대학생 참여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42	38.1
④ 대학 커뮤니티 커넥트 운영	10	9.5
⑤ 지역대학생 취업기회 확대	25	21.4
⑥ 대학생 시정참여 및 행정지원	10	9.5
합계	1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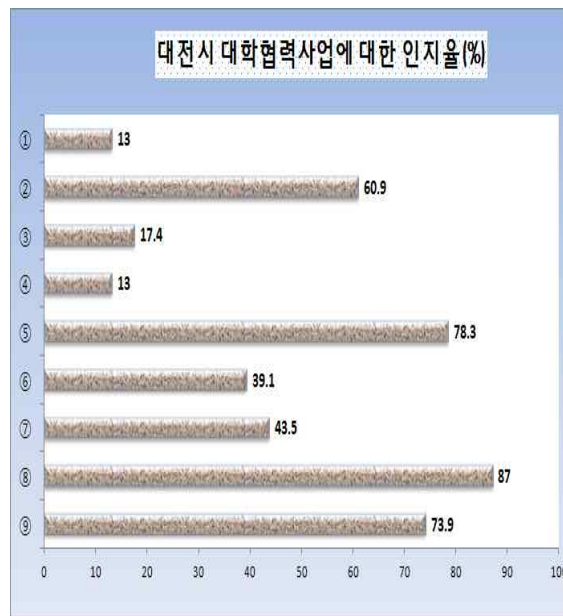
5) 대전광역시 추진사업에 대한 인지여부와 필요성

(1) 인지여부

○ 대전시가 대학협력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세부 추진사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사업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개의 대표적인 사업항목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업은 대학생 창업지원사업으로 전체 응답자 중 8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78.3%,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73.9%,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60.9% 등의 순으로 비교적 인지율이 높은 편이었다.
- 하지만 연합교양대학 운영,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 운영 사업 등은 인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홍보가 긴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항목	인지율 (%)
① 연합교양대학 운영	13.0
②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60.9
③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17.4
④ 대전권대학발전 협의회 운영	13.0
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78.3
⑥ 로스쿨 지원	39.1
⑦ 외국인 유학생 지원	43.5
⑧ 대학생 창업지원사업	87.0
⑨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73.9



(2) 세부 추진 과제 사업추진 필요성

○ 세부과제별 추진 필요성 비교

- 현재 대전광역시 추진하고 있는 대학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을 조사해 본 결과, 주요 추진사업 9개 중 가장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한 사업은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이었다.

항목	필요도 평균
① 연합교양대학 운영	3.22
②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3.87
③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3.70
④ 대전권대학발전 협의회 운영	3.74
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4.26
⑥ 로스쿨 지원	3.13
⑦ 외국인 유학생 지원	3.30
⑧ 대학생 창업지원사업	4.30
⑨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4.22



○ 기타 대전광역시가 대학협력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시책 요구

-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대전시가 대학협력지원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응답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내용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로 다양하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체계적이고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 - 근무하기 자랑스러운 직장 분위기 조성 - 기업인턴제도 및 기업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적극적인 활용 - 연구단지에 지역출신 고용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수준의 임금 인상 -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청업체 및 도급업체 관리 감독 철저 - 노인과 저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 - 지역할당제 및 지방대출신 취업제도 확대
문화·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놀이공간 부족 - 문화·체육시설 및 공연시설 마련 - 다양한 공연 유치 - 공연이나 문화산업 투자로 콘텐츠개발 촉진 - 스포츠 및 레저공간 확대 - 다자녀 가족 혜택 확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주택공급 확대 - 아파트 분양가 인하 -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인하 - 장학금 확대 운영 - 도서관 확충 - 공교육의 질적 향상,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 전문직을 위한 다양한 무료교육 실시 - 지방대학 편견 해소 - 고등학교 의무교육화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운행시간 연장 - 지하철 노선 확대, 대덕구 지하철 개통 - 편리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마련
도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 좋은 도시환경 마련 - 녹지 공간 확대 - 하천 생태 살리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의 특색을 살린 자체적 제도 마련 - 물가안정 - 4대강 사업 중단 - 흔들리지 않는 공무수행 - 의료서비스 확충 - 장애인 복지정책 활성화 - 지역발전과 범죄예방 - 지방자치제 폐지

제2절 대전지역 대학생 취업간담회 개최시 제출 의견

1. 대학생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인터뷰시 제출된 의견

1) 취업기회 확대

- 대학생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요구
 - 수도권에 비하여 취업 정보 제공 부족
 -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대전시와 지역내 기업과의 연계 강화, 대학생 대상 기업인 멘토 사업 추진 요구
 - 해외연수 확대 필요
 - 대전기반 향토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정기적인 취업설명회 개최 요청
- 대전권내 대학생 취업률 제고 방안 요청
 - 대전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외지로의 유출 심화
 - 대전 출신 학생들이 대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내 취업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요구
 - 대기업 유치 또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급선무

2)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 젊은 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 필요
 - 대전의 도시정체성 모호
 - 활력 있는 젊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학생의 자생적 문화활동을 장려
- 문화공간 확대
 - 대학생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 소극장, 작은 축제 및 대학생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여 제공
- 서울의 대학로처럼 대학생 문화의 거리가 캠퍼스 주변에 많이 만들어져야 함
- 대학생 연합동아리 활동 지원
 - 대전은 수도권처럼 대학생 연합동아리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대전권 대학간 소통을 위한 연합동아리 활동 지원 요청

3) 생활 여건 개선

- 교통불편 해소
 - 지하철과 대학간 연계성이 부족
 - 지하철과 대학의 연계를 위한 타슈 사업 확대 요구
- 대학간 소통의 장 마련
 -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부족
 - 대학 연합활동에 대한 대전시 차원의 지원 필요

2. 대전발전연구에 제출된 의견

- 충남대학교 학생 1
 - 대전시의 대학생 지원 시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짐
 - 대전시 시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대학생 지원 사업의 내용을 각 대학에 공문으로 발송, 각 대학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충남대학교 학생 2
 - 대전시의 유원지, 관광지로의 접근성 부족
 -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city tour에 대한 홍보 강화, 활용도 제고가 필요
 -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학생에 대한 지원 우선권 부여 필요
- 충남대학교 학생 3

-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
-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실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
- 충남대학교 학생 4
 - 대학생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할인혜택 부여 필요
 -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을 발굴하여, 브랜드화하는 노력 필요
- 조성한 Univ. Expo 위원장
 - 대전광역시는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너무나 적음. 문화의 불모지라 불리는 대전이지만 문화 활동 이전에도 대학생들로서 누리고 즐겨야 하는 봉사활동, 공모전, 기업 프로그램, 동아리 등 대학생들의 즐길거리도 부족함. 이러한 활동들은 흔히 말하는 스펙으로 대학생들 취업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임
 - 대전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대학생들을 원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
 - 대학생 문화활동 및 대외활동에 대한 지원
 - 대전에서 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기
 - 시청과 대학생들간의 소통 '시장님과 대화'가 현재는 '시장님과 총학생회장'과의 대화의 범위를 일반대학생들까지 확대시켜서 현실감 있게 평범한 대학생들과 시장님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함

3. 대학생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시 제출된 의견

- 의견 1 : 대전의 지역이미지성 제고
 - 대전이라하면 딱 떠오를만한 상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타지역과 연계한 대외활동을 하다보면 다른 지역 대학생 친구들이 대전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마련인데 그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보여줄 만한 대

전만의 어떤 공간이라던지 상징물이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대전 엑스포나 동물원이 주된 콘텐츠였지만 대전 시민들도 잘 방문하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 의견 2 : 대전의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외활동 지원 필요

- 대학 생활 중 바라는 점 : 과거와는 달리 이제 대학생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어졌습니다. 사회와 기업은 사회성 있고 경험 많은 활동적인 인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요즘 대학생에게 탈 캠퍼스 활동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에서는 대학생에게 제공할만한 특별한 무언가가 없습니다. 동아리지원도, 대학생축제도, 대전만의 공모전도 미비한 현실입니다.
- 유명한 대외활동은 대부분 기업들의 로고가 박힌 프로그램들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해피무브, 삼성의 영리포터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전의 대학생들이 만들어가고,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 대전 대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경쟁력이 생기고, 대전은 대학생들의 열정과 젊은 상상력으로 더욱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견 3 : 취업에 유용한 콘텐츠 개발과 기존 콘텐츠에 대한 지원 확대

- 불편했던 점은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문화뿐만 아니라 취업 같은 면에서도 불리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제공되는 콘텐츠의 양과 접근성에서 지방대학생으로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에서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콘텐츠 개발과 기존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견 4 : 대전 대학생들의 연계활동 공간 지원

-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유입되어 대전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게 마련인데 저는 대학생들을 위한 공

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남대, 한밭대, 충남대는 서로 어느 정도는 가까운 학교이지만 그런 대전 대학생들이 한데 모여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할 만한 공간이 대전에는 없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광장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 저는 대전 대학생들이 자신들만의 자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갈증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견 5 : 대전의 특성이 드러나는 상징장소 필요

- 대학생 생활환경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 일단, 대전의 시장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대구의 서문시장, 부산의 자갈치시장...등 유명한 시장이 많은데 물론 대전에도 한민시장이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막창이 맛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막창? 하면 떠오르는 곳은 대구입니다. 대전에도 대전만의 특별한 음식이나 간식거리를 발전시켜 대전의 00시장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은행동, 대전의 시내가 아직도 아쉽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내를 가면 정말 볼거리도 많고 재밌습니다. 맛있는 집도 많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하지만 대전의 시내를 그저...옷 사고 커피먹고, 밥먹는 곳의 느낌이 전부입니다. 대전 시내를 재미가 없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LED거리를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LED거리를 통해 대전 시내를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더 흥미로운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 의견 6 : 대학생 일자리를 위하여 대기업 유치와 대학생들의 인식개선 필요

- 대전에는 대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원하든 원치않든 타지방으로 많이 취업을 합니다. 기업을 가는 대학생들을 마냥 뛰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본인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죠.
- 기업을 유치하려는 대전시의 노력도 중요하며 대학생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대전지역의 학생들은 50%이상이 타지역에서 유입된 학생들입니다. 광주, 부산, 대구와는 다르게 타지역 유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 후에는 고향으로 가거나 이왕 자취를 할 것이라면 서울로 취업을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 대전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거주문제가 걸리기에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경우 사회초년생은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전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지만, 대학생들이 잘 모른다는 것은 제대로 된 홍보가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벤처기업이 많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면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대학생들이 벤처기업에 지원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 의견 7 : 대학생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효율적인 교통 계획 수립 필요
- 대전은 계획도시라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교통시설이 잘되어있는 편이긴 하지만 지하철에 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 대전역에서 충남대로 오기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월평역에 내려서 버스 환승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충남대학교 역인 유성온천역을 경유해서 학교로 오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타슈는 교통의 목적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주변의 상황을 볼 때 타슈는 레저, 취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교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교통에 관한 행정 계획을 세울 때는 최대한 효율성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8 : 대학생간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한 지원 필요
-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생각보다 학생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의 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단과 내 에서도 끼리끼리 놓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고, 각 동아리 내에서만 대화가 이루어 질 뿐이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대학교 축제가 고작이었습니다.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견 9 : 지역대학생의 취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필요

- 대전 지역 대학생으로서 건의 드리고 싶은 점은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정보도 많이 얻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 요즘 취업난으로 인해서 수도권 학생들도 점점 수도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취업의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접한 정보도 많고 수도권이라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역 대학생들에 비해서 스펙도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역 대학생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기업에서도 같은 가격이면 더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쓰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자라고 또는 지역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인재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현실은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지역이 그만큼 능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나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배경적 지식이 무시당하고 또 그런 것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쓰일 수 없다는 것은 지자체나 기업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모두에게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수도권 학생들과 경쟁하고 또 지역 대학생들을 미래의 대전 충남의 중추적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는 대전의 성격과 강점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과학 기술 도시이기 때문에 벤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청사가 자리 잡고 있고 또 많은 공기업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역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와 정보도 제공해 주시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겠지만 혜택의 범위나 강도를 약간 더 늘리는 방법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공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선발 된 학생에 한 하여 그 기업에서 1년이나 2년 동안 매학기 마다 3학점 대신 기업에 가서 잡일을 하던지 복사를 하던지 등의 일을 도우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해도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 기업도 그러한 학생들을 받아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혹은 그 학생이 미래에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고 고난이도의 일을 학생들이 수행할 수는 없겠지만 밀대질 하나라도 복사 몇 장하더라도 회사의 분위기도 알 수 있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확신이나 동기 부여가 될 것이고 또 자신이 목표하는 회사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경우도 이러한 학생들을 받아서 기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아가고 또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배워야 하는지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다면 학교를 다니면서도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역 대학생들이 세종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장이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도 지역 인재들의 활로를 뚫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 기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도시들과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을 받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또한 거부하는 기업도 많을 수 있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이런 네트워킹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기업에 혜택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성 등을 제공한다면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방안을 좀 더 현실성있게 키워보고 기획한다면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기업을 알고 또 맞춤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고 기업에서도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생각하고 키워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서로 웃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미 많은 방법으로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학생을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기업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보듬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지역 대학생들의 발전 지역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제 5 장

대전시와 대학의 협력 방안

제1절 대학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여건분석과 과제

제2절 대학협력 세부 추진 과제

제5장 대전시와 대학의 협력 방안

제1절 대학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여건분석과 과제

1. 대학협력 여건분석

- 대전시의 대학협력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전지역 대학교육 여건의 상대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한 대전시 대학들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시 인재관리 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이 전국 최상위권 ●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개발인력 집중 ●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모두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사립 일반대/산업대, 전문대 -특수목적대(KAIST,대학원대학,기능대) ● 시의 대학지원 정책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협력계 운영 -대학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선도기업 부재 ● 제조업 기반의 취약 ● 산학연 네트워크 미비
<p>S(강점) W(약점) O(기회) T(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 R&D 특구 ● 지역혁신을 위한 시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벤처창업 재활성화 ●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성, 활성화 ● 세종시 건설 ●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 교육개방에 따른 외국 대학 진출 ●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인재유출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유출

1) 강점 요인과 과제

- 대전시는 초·중등을 막론하고 학력수준이 각종 조사, 보도를 통해 발표된 것처럼 전국의 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다.
 - 따라서 대전의 대학들은 이러한 우수한 학력 수준의 학생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자녀 교육 여건이 양호한 지역임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임을 브랜드화 하는 전략을 취하여야 한다.
- 대전은 30년전에 조성된 대덕연구단지의 각종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우수한 고급 연구 개발인력 등 연구자원이 전국에서 가장 밀도 있게 집중되어 있다.
 - 대전 지역에서는 이러한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전국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분야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인재관리 또한 이러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이들 우수인력의 유입을 극대화하고, 유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전지역의 대학은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배출이나 산업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4년제 대학으로는 연구 중심 또는 교육 중심의 일반 국립대와 사립대, 산학협력 중심의 산업대가 있고, 2년제 대학으로는 전문대와 기능대가 있으며, KAIST, 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과 같은 특수 목적의 대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 지방자치단체 중 상대적으로 가장 다양한 구성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살려 이 곳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 산업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대전시는 대학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운영하고 있고, 대학 총학장들과 관련 기관의 대표인사들로 대학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 대학 교육의 혁신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 이러한 조직체를 효과적으로 가동하여, 대학이 지역발전과 적극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또한 대학의 인재양성과 적극 연계되는 지역사회, 대학 교육 융합형 인재관리 방향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2) 약점 요인과 과제

-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대전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나 선도 기업체가 없어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따라서 실질적인 산학연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차원에서 국내외의 우수한 기업을 지역내에 유치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또한 산학협력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대전지역 대학의 졸업생과 대학 교원의 50%정도가 이공계인데 비해, 대전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등의 3차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등의 2차 산업은 15%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실질적인 산학협력이나 지역산업을 위한 인력배출에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 역시 대전시 차원에서 취약한 기존의 전통산업을 보강하고, 콜센터 등 사회서비스 전략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대전지역에 다양한 기능의 대학이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수나 학생수 측면에서 고등학교에 비해 대학의 비율이 7대 도시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이러한 지역내의 여건과 함께 최근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방침을 감안할 때, 대전시의 각 대학들은 대학내의 구조개혁은 물론이고, 대학간의

M&A 등 통폐합을 통해 대전지역 대학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7대 도시 학교수 및 학생수 비교

구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학교수	고등학교(A)	305	139	87	104	63	59
대학(B) (전문대포함)		63	24	11	10	16	16	3
B/A		0.21	0.17	0.13	0.10	0.25	0.27	0.07
학생수	고등학교(C)	362,705	138,888	100,411	99,293	57,860	58,196	43,560
	전문대	68,052	73,717	64,386	40,014	40,368	38,381	13,394
	대학	796,919	191,806	62,117	40,328	88,535	110,052	18,885
	대학합계(D)	864,971	265,523	126,503	80,342	128,903	148,433	32,279
	D/C	2.38	1.91	1.26	0.81	2.23	2.55	0.74

(자료 : 교육통계연보)

3) 기회 요인과 과제

-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인재활용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대전시는 기존과 같이 연구개발 단계의 참여는 물론 벤처 창업, 기술 이전, 기술 및 지식의 경영관리 등 연구 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한다.
 - 또한 그 결과로서 활성화되는 산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산학협력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 공급 및 재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과 맥을 같이하여, 대전시가 대전의 새로운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상황에 처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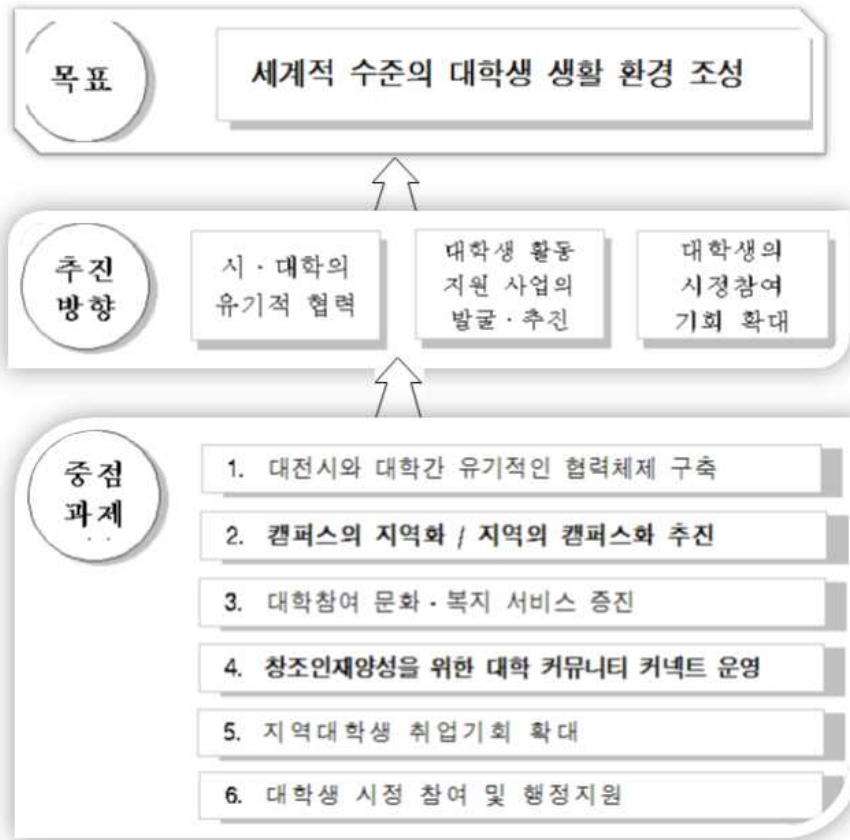
- 대전시는 연구, 교육, 산학협력 등의 분야에서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산학연관 클러스터에 구성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대전시 인근 세종시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세종시와의 상생방안 전략을 세종시에서 당분간 취약한 분야인 교육, 복지, 문화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의 정주환경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4) 위협 요인과 과제

- 지역사회에 인재양성 기관의 대표격인 대부분의 대학들이 현 시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한 위기상황을 접하고 있는 바, 그 결과가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입학정원의 의무적 감축, 대학간 통폐합 유도, 신입생 충원률, 교원확보율 등의 실적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 등의 대학 정책은 대전의 대학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학도 산업이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대학 정책 방향은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대학협력의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

1) 대학협력의 목표 및 추진방향



<그림 8> 대전시 대학협력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방향 설정의 기본방향

- 지역대학과 지역의 경제, 문화, 복지가 상호 수평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방향 및 영역 설정을 한다.
- 대학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지역대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 국내 각 대도시와 대학생의 삶의 질에서 비교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할 필요는 없으나, 성과목표를 뚜렷이 하여 대학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의 기대효과를 설정한다.
- 대규모 단기 가시적 사업보다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기획하여 추진한다.
 - 대학생 의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의 범위를 정하고, 정해진 범위내에서 가장 시급하고,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실행토록 한다.
- 대학생의 체감도 증진을 위한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지역대학간, 대학과 지역사회간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2절 대학협력 세부 추진과제

1. 세부 추진과제의 구조

○ 전체적으로 6개 분야의 정책유형, 30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6> 대학협력 세부 추진과제 및 사업

시 책 · 사 업 명	구분	추진부서
30개 시책·사업		
·대전광역시 대학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계속	교육협력담당관실
·대학총학생회장단협의회(가칭) 구성 운영	신규	교육협력담당관실
·「대학생포럼」 운영	신규	교육협력담당관실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급	계속	교육협력담당관실
·대학행사 연합홍보	신규	교육협력담당관실
·공공공간 대학생 교류회랑 지정 및 조성	신규	문화예술과
·대학부설 문화·체육공간 시민활용	신규	교육협력담당관실
·대학생 주도의 '대전 Fringe Festival' 개최 지원	신규	문화예술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대학참여도 제고	신규	문화예술과
·대학생 통학 편의성 제고	신규	교통정책과
·대학생 참여 복지사업 추진	신규	복지정책과
·대학생 voluntainment movement 실시	신규	자치행정과
·다문화가족아동 mentoring 실시	신규	여성가족청소년과
·책임있는 문화조성 대학생 참여 증진	신규	문화예술과
·대학특성화 프로젝트 상호협력확대	계속	기업지원과
·산·학·연 협력사업 대학지원 확대	계속	기업지원과
·대전(산, 하천, 역사)사랑 대학동아리활동 지원	신규	문화예술과
·대전 청년 Art Stage 조성 및 제공	신규	문화예술과
·누리관을 활용한 대학생 국제교류 확대	계속	교육협력담당관실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공급	계속	기업지원과
·지역대학생 채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계속	기업지원과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및 창업박람회 개최	계속	기업지원과
·대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신규	기업지원과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	계속	기업지원과
·대학새내기 대전탐방	신규	교육협력담당관실
·e-시정도우미 운영	신규	공보관실
·수요자 기반 행정인턴제 실시	신규	자치행정과
·청년과 소통하는 시정	계속	정책기획관실
·대학건의 숙원사업 지속관리	계속	교육협력담당관실

2. 세부 추진과제

- 대학협력시책을 6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추진토록 제안한다.

1) 시와 대학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분야 목표

- 지식기반사회 경쟁력 창출의 중심인 지역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 지역사회발전 선도의 주체로서 지역대학생과 동반자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 관련 사업

1-1.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 운영활성화-계속

- 대전권 대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담회 형식을 정례화하여 2004년 발족하였다.
- 이후에도 상설협의체로 정기회 및 임시회를 수시 개최토록 한다.
-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 의결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각 대학 기획처장 중심의 실무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는 방법 또한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구 성 : 시장, 교육감, 대학총학장, 대전상공회의소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 협의 회장 등 21개 기관장
- 회 의 : 정기회 (연2회), 임시회(수시-사안에 따라 협력회의 다수)
- 기 능 : 지역과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대학졸업생의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등 논의, 학관협력 현안사항 협의조정

1-2. 대학총학생회장단협의회(가칭) 구성 운영-신규

- 대학생 지원사업의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학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하여 운영 하며, 대학협력계에서 대전시정협력 사항을 중심으로 정기회 및 임시회를 수시 개최토록 한다.

- 구 성 : 18명 (시 1, 대학 17)
- 시: 기획관리실장, 대학: 총학생회장
- 회 의 : 정기회 (분기 1회), 간담회 (수시)
- 기 능 : 대학생 지원사업의 건의, 지원절차 협의

1-3. 대학생생포럼 운영-신규

- 대전지역의 대학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대학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의사통로로서의 주도적 역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전발전연구원 주관하에 대학생활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주제로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

- 개최시기 : 연 2회 정도
- 주 관 : 대학총학생회장단협의회, 대전발전연구원
- 장 소 : 대학별 순회 개최
- 소요사업비 : 20백만원 (강사료, 유인물인쇄비등)

1-4.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급-계속

-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중 생활이 어려운 학생, 학업우수대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한다.

- 현 사업에 대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금 추가 확보, 사업 홍보 강화,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하여 추진한다.
 - 목 적 : 우수인재 지역대학 진학장려 및 지역필요 인재양성
 - 대 상 : 지역대학입학 일정수준 성적우수학생
 - 재 원 : 대전인재양성재단 기금활용

1-5. 대학 연합홍보 체계 구축- 신규

- 대전소재 여러 대학들의 학사운영, 시설정보, 행사알림 정보 등을 市홈페이지에 접속, one-stop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 대전소재 대학의 홍보담당자, 홍보위원 연합회를 결성하여 홈페이지의 자율 운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생에게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 ⇒ 지역대학생의 상호교류, 복리증진 및 대학생 대상 시정홍보사이트로 적극활용한다.

- 운영시기 : '2013년 하반기
- 구축방향 : 市 홈페이지내 구성
 - 대학별 소식, 시홍보사항, 취업정보, 주거 및 교통 정보 등 게재운영
 - 직접 각 대학별 홈페이지에 링크 가능토록 디자인
- 소요사업비 : 10백만원 (웹디자인, 사이트개발)

2) 캠퍼스의 지역화 / 지역의 캠퍼스화 추진

□ 분야 목표

- 지역인재양성 및 활용을 위한 대학생 활동 공간과 편의기반을 확충한다.
- 대학이 보유한 지식기반의 지역민 활용성을 제고한다.

□ 관련 사업

2-1. 공공시설활용 대학생교류회랑 조성-신규

- 원도심 및 시가 운영하는 공공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진흥 일환으로, 일상생활 공간에서 대학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한다.

·대 상 : 중앙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역, 수목원, 남문광장

·시 기 : 연중 또는 조기, 심야, 주말 방학기간 등 선별운영

·내 용 : 대학생공연장 제공, 학습공간 제공, 전시공간 제공
별도 프로그램 개설운영(길거리공연, 조각품 전시)

·소요사업비 : 대학에서 시민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개발운영시기본경비를
시에서 일부 지원

2-2. 대학부설 문화·체육공간 시민활용-신규

- 각 대학의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등을 대학과 협의, 인근 주민에게 개방, 시민체력단련, 여가선용 및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다.

- 대 상 :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전시공연장 등
- 시 기 : 연중 또는 조기, 심야, 주말, 방학기간 등 선별운영
- 내 용 : 단순열람, 개방, 학습, 전시등을 제외하고는 시설별
별도 프로그램 개설운영(생활체육교실, 시민체력센터등)
- 소요사업비 : 대학에서 시민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개발운영시 기본경비를
시에서 일부 지원

2-3. 대학생 주도의 (가칭) 대전 Fringe Festival 개최 지원-신규

- 대학의 예비예술인 중심의 독립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정기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학의 동아리 경진대회를 겸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운영기간 : 매년 1회 (10일정도)
- 장 소 :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 시립미술관 / 갑천
- 운영방법 : 시 /장소제공, 행사경비 일부지원
대학 / 행사 진행
- 소요사업비 : 20백만원

2-4.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대학 참여도 제고-신규

-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대전시립미술관」 운영에 지역대학 전공학과 교수, 학생의 참여도를 제고한다.

- 대상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전공학과 교수, 학생, 동아리
- 내용 : 분야별 운영위원·아카데미운영에 지역교수참여, 모니터링, 기획전시공연 대학참여, 전국단위 대학생참여 예술이벤트 등 강구
- 소요사업비 : 비예산, 공익적사업 운영시 예산지원

2-5. 대학생 통학 편의성 제고-신규

- 대학생의 버스, 지하철 이용시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충한다.

- 주요내용 : 대학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지하철 역과 캠퍼스간 연계성 강화
타슈 프로젝트에 대학생 편의 고려
- 소요사업비 : 비예산

2-6. 청년문화제 기획 개최-신규

- 대학생들의 건전한 문화여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각종 대외활동의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요내용 : 대전권 대학생들의 창작가요제 개최 지원
시정활동에 대한 모의 의회, 모의 시정회의 등에 대한 개최 지원
- 소요사업비 : 30백만원

3) 대학참여 문화·복지서비스 증진

분야 목표

-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 문화·복지 향상에 최대한 활용한다.
- 지역대학생의 현장실습 기회를 최대한 제공 하고 직업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케 한다.

관련 사업

3-1. 대학생 참여 복지사업 추진-신규

- 대학의 사회복지 전공관련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복지사업을 시와 공동으로 전개 한다. (교수, 학생, 동아리 등 참여)
- 대전시에서 재료비 등 일부를 지원하며, 전체적인 공모 및 관리는 대전복지재단에서 주관하여 추진한다.

※ 예시 사업

- 저소득 독거노인 장례봉사 / 장례지도과
- 치매노인, 장애인 목욕이발봉사 / 대학 목욕시설 활용
- 노인 구강 총의치보철물 제작·수리봉사 / 치기공과
- 노인 스포츠 마사지 / 사회체육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시설장애아동 학습능력개발 / 사회복지학과
- 장애아 선별검사 및 상담 / 유아교육과 등
- 교육만두레 지역 방과후 교육 / 교육학과, 영문과, 수학과

3-2. 대학생 대전시티즌 사랑운동 전개-신규

- 대전시민 프로축구 구단의 지속적인 후원자로서 대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긍심,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학별 대학생 서포터즈 후원활동 관심도 제고 협조
 - 대학축구팀과의 친선경기, 축구교실운영 등 대학별 시티즌 사랑운동 전개
<대학별 시티즌사랑운동 참여권장>

- 대학생의 대전시티즌 서포터즈(피플크루) 가입하기
- 연간 관람권 구매하기 ·대학별 팬싸인회 개최
- 친선경기, 축구교실 운영 등

⇒ 대학별 대전시티즌 사랑운동 참여분위기 조성 적극협조

3-3. 대학생 Voluntainment movement 전개-신규

- 즐겁고 여가와 뜻 깊은 봉사활동을 결합한 즐겁고 신나는 복지제도의 정착을 유도 한다.
 -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여 프로그램 개발
 - 대학봉사단을 구성하여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위한 연간, 월별 계획 수립

<대학생 Voluntainment의 예>

- 소수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레포츠 활동
- 함께하는 요리 축제 ·사랑의 산타봉사
-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대학생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여복지 실현

- 주요내용 : 자원봉사단체의 연합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시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자발적 봉사활동의 활성화
- 소요사업비 : 20백만원

3-4. 다문화가족아동 mentoring-신규

- 다문화 가족아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찾아가는 가정학습을 구현한다.
- 대학 인재를 mentor로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의 인식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아동의 한국사회 적응을 유도한다.
 - 다문화가족아동과 대학생과의 자매결연·멘토십 형성
 - 다문화가족아동과 대학생 멘토가 함께하는 대전의 전통문화 유산 찾아가기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아동 및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교류 이벤트 개최

- 주요내용 : 1대학생 다문화가족 1가정 자매결연 추진
 다문화가족 가정 방문 이동에 대한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 소요사업비 : 20백만원

3-5. 책읽는 문화 조성 대학생 참여 증진-신규

- 대전을 책읽는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대학생 책나누어 읽기 캠페인 전개 : 릴레이 독서, 도서기증 등
 - 대학생 문학동아리 발표회 개최 지원
 - 지하철에서의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 시화전 개최 지원

- 대학생 다독왕 선발대회, 독서감상문 공모에 따른 포상제 실시

○ 지하철 문고에 대한 대학생들의 도서 기증 확산

- 주요내용 : 대학생 독서 경진대회
 도서기증의 확산을 통한 독서 분위기 제고
 대학생들과 초등학교의 연계 독서연구회 활동 지원
- 소요사업비 : 20백만원

3-6. 사회서비스 교환을 위한 대학생 만두레 운영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내 대학생의 노동력, 지식, 기술 등을 상호 교환하여 자조, 자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교환체계로 대학생 만두레를 구축하여 운영
- 각종 사회서비스를 매수하기 위한 현금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자신의 기술이나 잠재적 능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줄이는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체계로 활용

○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

- 대전복지재단의 대전만두레에 대학생들을 위한 만두레 교환서비스 품목 개발
- 각 구별이나 동별로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게시판을 만들고 수요자-공급자간 연결 지원
- 각종 강습, 자원봉사 등 환금성이 없으며 문화·복지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대학생만의 품앗이 형태로 대학생 만두레 운영

3-7. 대학생 자원봉사 네트워크구축 및 활동 활성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원봉사 경험이 풍부하고 의욕 있는 2030세대에게 유용한 자원봉사 기회에의 접근을 제공하도록 환경 및 기반 구축

○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

- 대전광역시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2030세대의 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을 결합한 결연 프로그램 운영
- 대전광역시의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와 대학생의 1:1 결연사업 추진(교육만두레 연계)
- 의료봉사 등 대학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봉사활동 발굴, 취약지역과 연계 지원

4) 대학 커뮤니티 커넥트 운영

□ 분야 목표

- 지역대학이 산학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하도록 한다.
- 지역 핵심사업과 연계한 대학특성화 발전을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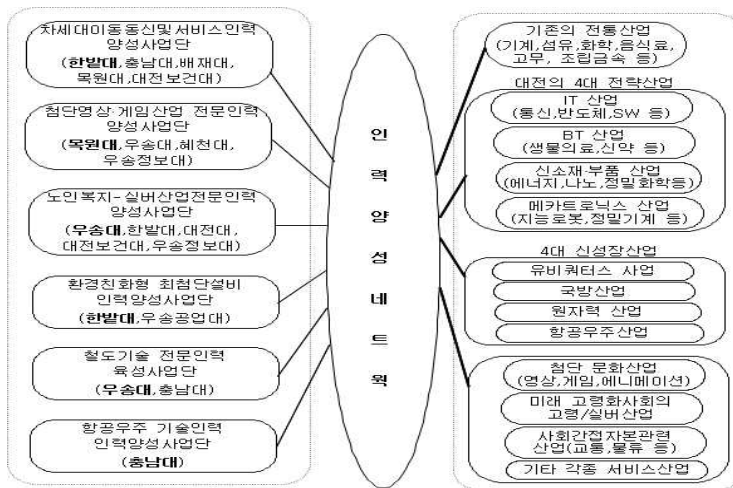
□ 관련 사업

4-1. 대학특성화 프로젝트 상호협력 확대-신규

- 대학의 강점과 특성, 지역의 발전역량을 접목시킨 대학추진 지역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협력한다.
- 대전시와 협력사업 (예시)

- 생명과학분야 특성화사업 ·지방과학기술센터 운영
- 지역인재취업정보센터 구축 ·미생물생태자원 특성화사업
- 대전게임아카데미 운영 등

- 인력양성분야의 대학특성화 사업과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예시)



4-2. 산·학·연 협력사업 대학지원 확대-신규

- 기업 필요 애로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산업화 등에 지역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 중앙정부의 지방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여러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고루참여하고 타지방과 차별화 전략사업이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래와 같은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의무화
 - 대전시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내 대학의 공과계열 학과에 공학교육인증(ABEEK) 도입을 의무화한다.
 - 산업체에서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시키고, 인력 채용시 인증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한다.
 -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 각 대학이 대전·충청 지역의 산업체 현장에 교육장을 설치하여(off-campus) 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규 학위과정을 실시하되, 교육과정 편성시 교육수요자인 산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재교육이 실현되도록 한다.
 - 계약형 학과제 설치 - 주문식 교육 실시
 - 대전 지역의 기업체, 공공기관, 군관련 기관과 대학이 특정한 분야에 대한 학과나 전공과정을 계약에 의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대전지역에는 계약형 학과를 요구할 만한 대기업이 부족하나, 상대적으로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 군관련 기관 등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 기관과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 현장실습학기제(3+1 system) 확대 실시

- 대학의 4학년(8학기) 과정중 1학기 또는 2학기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산업체에서 실습으로 대신하고 해당학기의 이수 학점을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산업체에서는 우수한 산업 인력을 육성, 발굴하는 기회로 삼게 한다.
- 이 제도는 대학보다 산업체의 협조가 필수조건인 바,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지역의 관련 협의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산업체로 하여금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산학연계과정(IRP) 운영

- 자신의 고유 전공분야와 인접하거나 관련있는 분야, 또는 학제간 전공의 성격이 강한 분야, 또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학 졸업자들의 현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도입

- 대학의 각 전공분야에 대해 이론적으로 익힌 전공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체험,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학 졸업생들로 하여금 창의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해당 전공분야의 현장 적응능력을 익히게 한다.

○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한다.

■ 대학-산업체간 인력 교류

- 대학에서 산업체로 또는 산업체에서 대학으로 인적인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이론과 기술이 산업체에 즉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체의 요구

와 현장감이 대학의 교육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현장에 대한 산학간의 괴리를 없애도록 한다.

■ 전공(학과단위 또는 교수개인 단위)-산업체 협의회 구성 운영

- 대학의 각 학과(전공)이 학과 단위 또는 교수 개인단위로 대전지역의 기업체와 1:1의 협의회를 만들어, 대학은 산업체에 기술지도, 경영진단, 기자재 사용 등을 제공하고, 산업체는 대학에 기술개발 지원, 현장실습장소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인 산학협력 가능하도록 함

■ Home Doctor 시스템 사업

- 대전지역은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만한 대기업이 취약한 대신 많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바, 교수 1인과 학생 3-5명이 한 조가 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상의 애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이 졸업후 현장에 투입될 때 곧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연구-산학협력 복합기능의 공간적 클러스터 건립 운영

- 대덕 R&D 특구의 출범과 함께, 대전시의 각 대학에서는 R&D 특구 내에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하여, 한 건물내에서 대학과 기업체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산학협력 및 연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여기에 창업지원 기능과 기업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적 클러스터를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산학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국내외 산업체 인턴십 확대

- 대학 4학년 과정의 예비 졸업생들에게 지역의 공공기관, 공기업체, 기존 산업단지의 산업체, 벤처기업체 등에서 인턴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해당 기관 또는 업체로서는 실정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선택하는 기회를 보장하고, 졸업생에게는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장 경험을 쌓아 추후 취업시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또한 대전의 국제화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대학마다 국제교류협력이 체결된 대학을 통하여 국외 산업체 인턴쉽을 적극 추진·실시하도록 한다.

■ 지역대학 2+2 시스템 구축 운영

- 전문대 인력중 직접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 대학에서 편입을 받아 현장의 요구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전문대에서 2년간 산업체 연계 실무기술을 습득하고, 동일한 전공의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2년 동안 보다 심화된 고급기술 또는 관리기술을 이수하여 산업체에 투입함으로써 전문대-4년제대학-산업체가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실현하도록 한다.

4-3 대전(산, 하천, 역사) 사랑 활동 지원 - 신규

- 대전권 대학생 및 대전출신 외지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대전의 역사, 문화 바로 알아가기 행사를 추진한다.
- 또한 매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연합교양대학사업과 연계하여 본 행사를 추진토록 지원한다.

·주요내용 : 대학생 대전 둘레 밟기 행사의 정기적 개최(하기, 동기)

3대하천 자전거 이동 행사 겸 환경보호 활동 전개

대학생 대전문화체험단 발족 운영

·소요사업비 : 40백만원

4-4 대전 청년 Art Stage 조성 및 제공 - 신규

- 문화 예술에 대한 성과물로서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대학생 예술 동호회와 아틀리에의 발표의 장으로 활용토록 지원한다.
 -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대전역, 버스터미널, 관공서, 지하철역, 공원 등)에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 아트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하는 대학생에게 아트 아틀리에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틀리에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 도시의 유휴시설, 협오시설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한다.
 - 회화, 조각 등의 조형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의 무대예술, 그 외의 사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 간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을 유도, 이를 위한 공간으로는 유휴시설, 협오시설 등을 활용한다.(예 : 화장장, 교도소, 공단, 폐교, 창고 등)
- 중구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창조화랑(Art Stage)을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한다.
- 대학생 문화활동 전개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을 활성화한다.

·주요내용 : 공공시설의 대학생 문화활동을 위한 이용활성화
시청앞 공간을 대학생 문화활동 장소로 활용가능하도록 조성
주요하천부지를 대학생 문화활동의 장으로 재활용
·소요사업비 : 30백만원

4-5 누리관을 활용한 대학생 국제교류 확대 - 계속

○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인 누리관을 국제 대학생 교류센터로 활용한다.

- 주요내용 : 누리관의 외국인학생 축제 및 체육행사 개최를 통한 대전대학생들과의 교류 활성화
한국학생들의 누리관 방문의 날 도입
대전 대학생들의 누리관 학생들과 한국바로알기 멘토제도 도입
- 소요사업비 : 비예산

4-6. 대학생 통합멘토링 체계 구축 - 신규

○ 사업필요성 및 목적

- 정책연결망 개념으로서 통합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전시 2030세대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특정한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그것에 응답하여 적재적소의 기관과 기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함

○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

- 대전시 콜센터와 연계하되, 다양한 2030세대들의 수요에 적합한 전문 멘토를 확충하고 보육, 여성파트타임, 지역축제 참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활용

4-7. 대학생 세대공감 Mentoring 시범 운영

○ 사업필요성 및 목적

- 멘토링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시범운영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
- 시범운영은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

- 취업정보센터 연결망 구축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 포털사이트의 취업정보란을 보다 확대하여, 대학생들에게 취업정보망을 가동하고, 재취업교육, 실업보험 급여, 취업알선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
- 정책사업 멘토링 : 대전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볼런티어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여 시정의 핵심사업에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을 매칭하는 정책사업 멘토링 제도 운영
- 문화활동 멘토링 : 대학생들이 음악, 연극, 영화 등의 문화활동을 하고자 할 때, 문화활동 모임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도와주고, 문화산업인력 양성기관을 소개하고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프리랜서 혹은 특정 직장을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함

4-8. 문화활동 동아리 육성

○ 사업필요성 및 목적

- 문화의 다양한 영역별로 2030세대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on-line 및

off-line 동호회 활동 지원

○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

- 문화정보 제공기관과 영역별 동호회 연계 웹사이트 제공
- 각 영역별 최신 공연물, 최근 현황 등등에 대한 평론 연재물 게재
- 문화산업 인력수급, 일자리 현황을 소개하여 미래 취업에 대비하도록 각종 정보 제공
- off-line 동호회 육성을 위한 활동경비 보조
-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공연티켓, 영화티켓, 음악회 관람티켓 할인 지원
- 문화활동을 부업으로 하려는 사람이나 미취업상태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려는 사람들 중 일정한 숙련을 습득한 사람들을 프리랜서로 등록케 하여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 일자리와 연계

5) 지역대학생 취업기회 확대

분야 목표

- 지역기업의 수요중심 필요인력 양성공급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사업

5-1. 대전 청년 Job Bank / Work-Net 운영 - 신규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대전광역시 및 충청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장기구의 정보를 수합하여 지역대학에게 제공하는 정보채널 운용
- 구인, 구직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구직의 요건과 자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

- 가칭 대전 대학생 Job Bank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
- 구직, 구인, 교육훈련, 창업지원과 관련된 종합채널로 구직하려는 청년층과 구인을 원하는 기업에게 One-stop service를 제공
- 관내 대학의 취업정보센터, 종합고용센터, 관내 인력은행과 연결해서 노동시장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

5-2.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 계속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업체의 직무수행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요중심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 기업체와 대학이 협약으로 학과실설 등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 기업의 취업예약 장학금 등 인재를 유입하는 여건 조성

○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

- 대전시는 기업체 인력수요조사 및 정보제공, 산업유형별 수요인력 정보파악 DB화
- 대학은 기업맞춤형 학과 조정, 커리큘럼 조정
- 기업과 대학간 인재양성공급 협약에 의해 추진

- 기업체의 직무수행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요중심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체와 대학이 협약으로 학과신설 등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취업예약 장학금”등 인재를 유입하는 여건을 조성토록 한다.

· 시 : 기업체 인력수요조사 및 정보제공
(산업유형별 수요인력 정보파악 DB화)

· 대 학 : 기업맞춤형 학과조정, 커리큘럼 조정

⇒ 기업과 대학간 인재양성공급 협약에 의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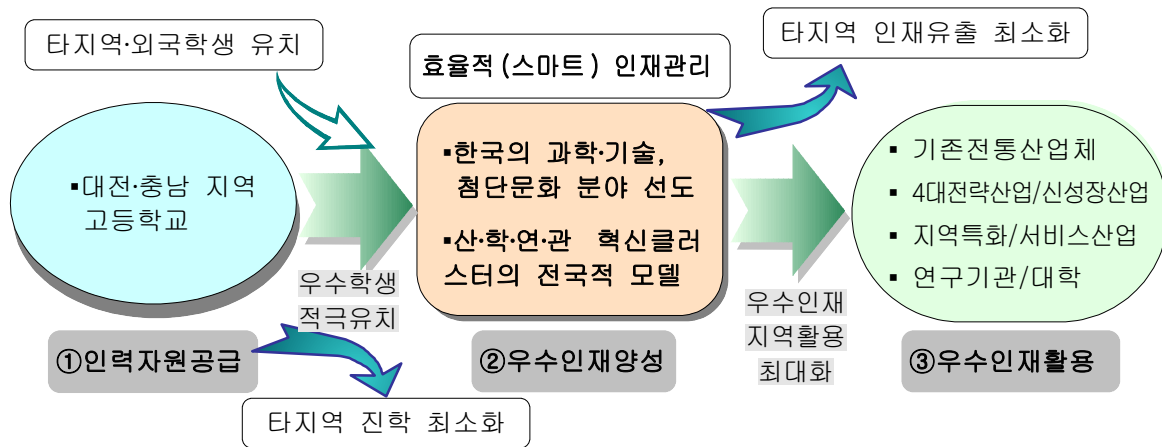
- 대전시 (가칭)인재 양성 및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전체 개념을 아래와 같은 맥락에서 정하고 추진한다.

대전시 인재양성 및 활용 플랫폼 구축 개념

○ 지역의 효율적인 인재관리를 위해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핵심 과제는,

- ☞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를 많이 유치해서,
- ☞ 이들을 어떻게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실력있는 인재로 관리하고,
- ☞ 인재를 어떻게 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가로 요약

○ 이에 대한 개념을 좀더 구체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대전지역 대학 인재활용 플랫폼 개념도>

○ 먼저 우리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중 우수한 학생의 지역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타지역 또는 외국의 우수 학생들을 대전 지역 대학에 많이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

- ☞ 이를 위해서는 대전지역 대학들이 좋은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그리고 선진화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지역 대학에 대한 대전지역 대학들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해외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해야 함

○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들인 대학은 이들을 지역의 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인데, 이를 위해 대전 지역의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

- ☞ 첫째는 대덕 R&D특구의 출범과 더불어 대전 지역 대학들은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와 첨단문화 분야만큼은 한국에서 최고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 대학 공동의 특성화를 기하여, 타지역 또는 외국의 우수 학생이나 연구기관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며,
- ☞ 두번째는 대학-연구기관-산업체-지자체로 구성되는 산·학·연·관 클러스터가 전국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모델을 만드는데 지역 대학이 모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대전의 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

- ☞ 대전지역의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적자원의 수요처는 기존 전통산업분야, 새로 지정된 4대 전략산업, 4대 신성장산업 분야, 첨단문화산업 등 지역의 특화산업과 서비스 산업 분야, 연구소나 대학 등의 연구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우수한 인적 자원의 지역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각종 효과적인 제도 도입·시행과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함

5-3 지역대학생 채용기업 인센티브 제공-신규

- 지역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역대학생 채용우수 지역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우수기업 선정 : 지역대학졸업생 취업실적, 채용규정 등 감안하여 평가선정

인센티브 예시

-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산점부여, 표창 및 기업소개
- 경영안정자금 저리금융지원
- 수의계약 대상 공사발주·물품구매시 우대 등

⇒ 지방대생 채용 우수기업 선정기준 등 세부계획 별도수립

5-4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확대 및 창업박람회 개최-계속

- 대학생의 창업활동 유도를 통하여 대학생 취업기회 증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지원을 확대한다.
- 청년창업프로젝트 500사업을 활성화하여 청년창업환경이 가장 우수한 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한다.

·주요내용 : 대학 창업동아리의 아이템 공모 지원

대학생들의 창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창업아이템 상품화 촉진

·소요사업비 : 60백만원

5-5 대학생 취업박람회 개최-신규

- 대학취업시즌과 연계하여 대학생 대상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대학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역기업체에서는 우수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최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주요내용 : 구직자 및 구인업체 현장면접

- 직업훈련 상담, 직업심리검사, 창업·대부사업 안내 등

- 소요사업비 : 10백만원

⇒ 대기업 인사부장 초청특강 「지방대생을 위한 취업세미나」 등 개최 검토

5-6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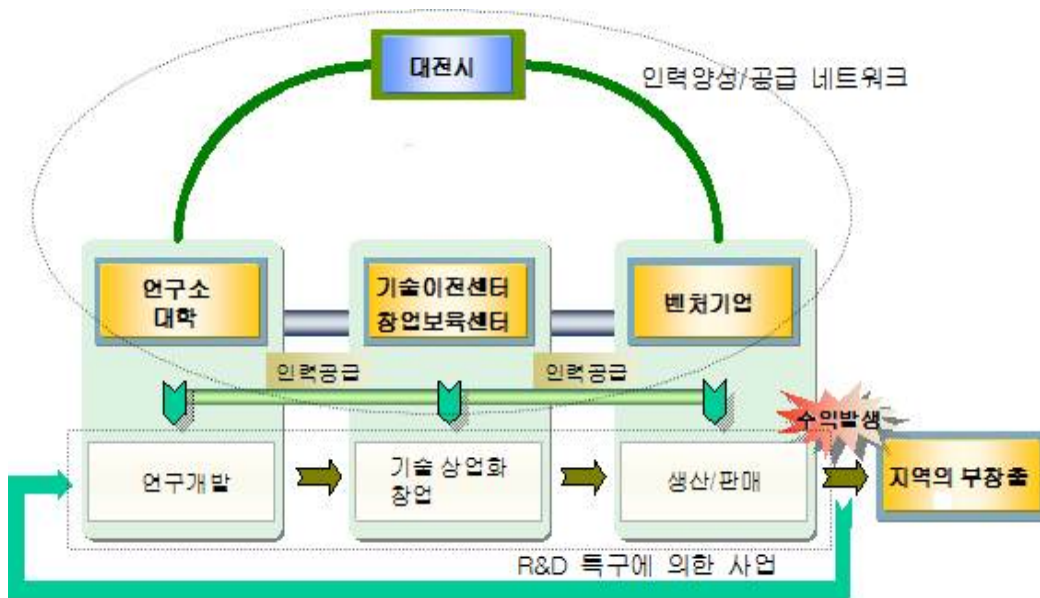
- 외국의 기업들과 시와의 협약을 통하여 대학생의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을 취업과 직접연계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여 추진한다.
- 해외자매도시, 해외진출 충청도민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대학생에게 제공한다.

- 주요내용 : 시에서 해외취업의 창구 역할 수행

- 소요사업비 : 비예산

5-7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활용체계 구축- 신규

- 대전시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산업체의 기반이 약한 대신에 연구개발 분야의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에 맞게 연구 개발인력의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하며, 이러한 면은 대덕 R&D 특구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부 등 중앙부처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도 지역의 연구역량 확대에 보다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려면 산업체 인력 양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대전시)가 직접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대전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 수요의 대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덕 R&D 특구와 연관되어 발생되는데, 그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된다.



<연구개발인력 수요 및 공급 체계>

○ 대전지역의 연구개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각 대학이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우수 연구인력의 조기 발굴 육성 체제 구축

-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는 뛰어난 소질과 역량을 가진 재원을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이를 위해서는 대전 지역의 대학들이 중·고등학교의 영재를 선발하여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AP(Advanced Placement) 제도 등 영재 육성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이 조기에 이 지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 대학생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제도 운영

- 지역 연고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여 대전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고급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시가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중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세계의 초일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 대전지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대학간 M&A, 대학내 학과 통폐합 등을 통한 지역내 대학구조 혁신

- 대전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을 전체적으로 강화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단위의 M&A 또는 학과 단위의 통폐합 등을 실현하여,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역내의 대학이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초일류 대학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
- 최근 학생수 급감과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맞아 대전지역의 대학들은 국립/사립, 연구중심/교육중심/산학협력중심, 학문분야/산업분야별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대학간 또는 대학내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전공별 연구회 포럼 구성, 활성화
 - 각 대학별로 동일한 학과 또는 전공별로 연구회 또는 포럼을 구성하고, 이를 산업체와 연계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학간, 학과간의 실질적인 연구-교육 협력 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략산업별, 지역특화산업별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조직 운영
 - 대전지역의 혁신 전략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조직 운영이 핵심적인 내용인 바, 앞으로 구성될 대전지역의 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별 산학연 클러스터에 각 대학이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의 클러스터에 구성 주체로 참여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분야로 졸업생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대학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R&D 인턴십, Post-Doc 제도 확대
 - 우수한 연구인력을 지역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예비단계로 대전지역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 학생들에 대해 지역의 각종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시키는 R&D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고, 박사 인력에 대해서는 Post-Doc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의 연구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 맞춤형 R&D 및 기술지도, 기술이전 사업
 - 대학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를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기술을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여기에 학생(학부, 대학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연구 또는 기술개발 인력의 층을 두텁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 산업계지원 공용 연구·실습장비 구축
 - 각 대학에 중소기업 등에서 보유하기 곤란한 고가의 연구 또는 실습장비를 도입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5-8. 문화산업인력 양성

○ 사업필요성 및 목적

- 2030세대의 주요 관심이 문화에 있으며, 문화소비와 문화창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문화세대로서의 특별한 감각을 갖고 있음
- 지식기반의 핵심사업으로 문화산업을 육성코자 문화산업의 주력으로 2030세대를 양성토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 추진방안 및 세부내용

-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을 통하여 3D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 지역내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용한 정보기술소프트웨어분야 특성화 교육 지원
- 대전연합교양대학에 문화산업인력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문화산업분야 전략화 수범인력 집중 양성 및 취업지원

6) 대학생 시정참여 및 행정지원

분야 목표

- 대학생의 시정 이해 증진과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 대학의 행정적 건의 및 숙원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해결토록 한다.

관련 사업

6-1. 대학새내기 대전탐방 - 신규

- 대학입학·유학을 통해 대전에서 처음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 외지전입 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대전을 홍보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시기 : 신학기 초

·대상자 : 대전전입 외지학생 및 외국유학생

·운영방법 : 「대전시티투어」활용 (대덕연구단지 포함)

·소요사업비 : 10백만원 (식비, 교통비등)

⇒ 시정설명 및 홍보, 문화시설, 연구단지 견학 등

6-2. e-시정도우미 운영 대전탐방 - 신규

- 디지털문화에 익숙한 대학생에 대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정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다.

-구성운영 : 대학생 110명

- 대학생들의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사항을 공모하고, 시정 연구논문을 공모하여 포상한다.

〈주요기능〉 시↔도우미간 24시간 쌍방향 정보유통체계 유지

- 시정참여 기회제공 및 사이버공간을 통한 시정홍보
- 시정발전 및 시책개발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보
- 시민여론 조사(설문 등) 및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제보
-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한 개선 제안 및 건전여론 조성

⇒ 활동실적 우수자 표창 및 포상

6-3. 수요자 기반 행정인턴제 실시 - 신규

- 공직 진출희망 대학생에게 공직체험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한다.
- 인턴쉽의 실제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교육기능을 강화 한다.

⇒ 인턴쉽 경력자 취업지원 및 지방공무원채용 우대방안 강구

- 대 상 : 대전 관내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대학추천자
※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기수혜자 제외
- 규 모 : 50명정도 (시본청, 사업소등에 전공관련부서 근무조치)
- 근무기간 : 6개월정도
- 보 수 : 정부노임단가 적용 (월 60만원정도)
- 소요예산 : 190백만원

6-4. 청년과 소통하는 시정활동 전개 - 계속

- 시장과 대학생 대표들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 시장 및 주요 시정간부들의 대학생 순회 강연 및 간담회 개최
- 공무원과 함께 하는 시정 체험활동(민원 부서 등) 전개

6-5. 대학 건의 및 숙원사업 지속관리 - 신규

- 대학 건의사항 수시접수처리 및 매년 1회 리서치 실시

※ 예) 2013년 대학건의 접수결과

계	도 로	도시계획	교 통	과학기술	문 화	지하철	기 타

⇒ 이 가운데 처리가능사업인 건(70%) 추진중 / 완료 건(월현재)

참 고 문 헌

- 구건서 (2009), 일본에 있어서 대학특성화의 특징과 방향, 일본학보, 제78집, p. 187~205.
- 김지은 (2010),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연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3호 2010. 9. P.69~86
- 대전발전연구원(2008). 창조도시 대전만들기. 대전광역시.
- 대전발전연구원(2011). 대전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대전광역시.
-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2008). 대전지역 창조인재 양성방안.
- 류진석 (2007), 지역복지 거버넌스와 지역대학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여름호, p.27~47.
- 문남철 (2010),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취업이동과 지역발전, 국토지리학회, 제44권, 4호, p.581~593.
- 박영한 조영국 안영진 (2005) 『대학과 지역발전』 한울아카데미
- 손승호 (2007), 일본의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과 도시 재활성화, 한국도시지리학회, 제10권 2호, p. 105~117.
- 유현숙(2006),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2009),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보고서 2012-15

대전시와 대학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2년 8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2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 FAX 0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